NOV 2 1981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토론토

No. 655 1981년10월27일(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Tuesday, October 27, 1981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고부장 : 송 광 호
식자부장 : 박 부 용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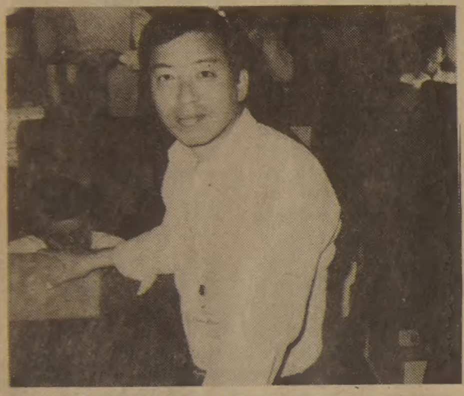
트루도수상 방한수행 100시간 ①

소탈하고 평민적 체취 예식없이 오타와 출발

[편집자주 : 본보는 지난 9월 캐나다수상으로는 최초의 트루도의 방한을 본사 이태은 오타와지국장의 특파로 특종보도한 바 있다. 이태은 특파원은 34명의 수행기자의 일원이며 유일한 교포기자로 선발돼 트루도 수상의 방한을 보도했으며, 특히 이번 방한에서는 10명의 풀기자중의 하나로 선발돼 수상 방한일정을 전면 보도했다. 이 기자는 오타와에 태권도학교를 개설중인 언론인겸, 체육인이다. 지난 10월초 오타와로 귀임한 이태은 지국장은 이번 트루도 수상의 방한의 뒷얘기를 보내왔다. 본사는 몇차례에 걸쳐 그동안 실리지 않은 사진과 함께 특집 보도한다.]

글·사진 이태은특파원

◇한국및 호주방문차 오타와의 캐나다군 공항을 떠나는 트루도수상. 트렁크를 손수 들고 트랩을 오르는 모습이 정치후진국 지도자들과는 너무나 다르다.


◇다른 특파원들과 함께 수상전용기에 타고 앵커리지로 가는 이태은 특파원.

한국을 떠나온지 꼭 7년만이다. 수상을 수행 모국을 방문한다는 흥분과 기대속에 전날밤은 잠을 설쳤다.

◇9월25일(금) Hanger 11 CFB 오타와 VIP전용기지에 도착했다. 3AMU격납고가 모여는 장소다. 크기는 거의 축구경기를 할만큼 넓었지만 텅빈 항아리처럼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수상실 비서진은 발써오래전에 도착하여 나를 기다리고 있다가 즐거운 여행을 바란다면서 봉투 한개를 건네 주었다. 그속에는 3개의 황색카드로된 수상수행 특별패스와 목에걸도록 되어있는 캐나다 기자단패스, 일정이 마련된한권의 스캐줄이 들어있었다.

수하물 체크나, 출국신고같은 절차는 전혀없다.

일행모두가 5시10분전까지 탑승을 완료했으나 나는 수상의 출국모습을 카메라에 담을 생각으로 기내 밖으로 다시나왔다.

기지주위는 수상출국을 모르는것 처럼 조용했고, 몇몇지방기자, TV카메라맨, 수명의 RCMP경비원들을 빼고는 매우 한산했다. 예정보다 3분늦은 피로한 기색의 수상은 큰 가방을 손수들고 아무런 코멘트도없이 탑승했다.

너무 간단한 출국행사에 이현홍 공사는 외무성에서도 아무도 안나왔다고 의아해 했으나 수상의 외국출입은 요란하지않고 언제든지 이 정도라고 내 도장 학생인 수상경호원이 귀띔해 주었다.

수상전용기에는 공식수행원 15명, 비공식 수행원 4명, 수행기자 34명, 승무원 17명이 탑승완료, 한국을향해 시속 6백마일로 출발했다.

기내 조종석 바로뒤에수상전용실 침대, 캐비넷, 책상, 화장실과 8명의 별도좌석이 있어서 언제든지 기내회의, 집무, 지상과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기자석 뒤쪽에는「프레스룸」이 설치되어 있다.

탑승직후 수상은 곳바로 웃옷을벗고; 기자석으로 나와 일일이 악수도하고 개인안부를 묻는등 누구에게나 반갑게 대했고, 나한테도 웃어보이며 손을흔들어 아는척 했다. 수상을 대할때는 공사를 막론하고언제든지 다정스러운 거리감없는 친구처럼 느껴진다.

얼마전 오타와서 유일한 아리랑 한국식당에 갑자기 들른 트루도는 구석진 자리에서 한식을 즐기며, "다음에 오실땐 애들과같이와 달라"는 식당주인의 청에 세아들과 함께 두번이나다시찾아와 애들식사 뒷바라지까지 하는 소탈하고 자상한 아버지다. 특별히 만두와 새우티김, 생선회를좋아한다는 수상은, 다음번엔 식당주인을 초청하겠다고 약속, 몇달후「맥시코」대통령이 수상을 방문한 공식디너파티에 약속을 잊지않고 초청하기도 했다.

오타와에서 수상을 만나보기란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 경호원 없이 주말이면 곧잘 중국식당에서 식사를 하기도하고, 오타와의 명동으로 일컫는「스파크·스트리트」에서 직접 일용품을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스포츠의 비게임이나 서커스 까지도꼭 애들을 데리고 다니며, 겨울엔 오타와의 유명한「리도켄널」에서 일반인과 섞여서 스케이트를 즐기기도 한다.

수상은 별로 기자들을좋아하지는 않으나 자기가옳다고 주장하고 꼭 이겨야 된다고 생각할 땐 기자들을 수상공관으로 초대하여 토론을 펴고, 기자들이 묻기전에 선수를 치기도 한다.

우리들을 부를때는 일일이 이름을 부를정도로 그의 비상한 기억력은 누구나가 다 인정한다.

얼마쯤 날았을까, 머리가 좀 아파온다. 아스피린을부탁했더니 두알을 무료로주면서 한병에는 $2·17라고 하기에 나는 세일할때 사겠다고 농담했다.

늘씬한 키에 보기 드물게 예쁜 여공군 승무원이 귀찮을 정도로 누구에게나 수상과 동일하게 식사, 드링크, 스낵, 주류등을 계속 서비스한다.

7시간쯤 날은것 같다. 앵커리지 엘멘도어 미공군기지에 기착했다. 공교롭게도 건너편 활주로엔 대한항공기가 착륙하고 있었다. 미경찰의 에스코트하에 캡틴·쿡 호텔에 도착했다. 18층과 22층전체가 숙소로 정해졌고, 미리 준비된 안내서와 방열쇠가든 봉투를 받았다.

나는 기내에서 수상공보비서관에게 앵커리지 에서 가능하면 수상과 단독인터뷰를 하겠다고 신청해 두었는데, 수상이 피로 한것 같다고 해서 모두들 수상을 만나는 것을 포기했다.

그날밤 수상방 안내는「옥희」라는 한국여성이 맡고 있었다. 호텔 식당과 빠는 우리들을 위해 특별히 24시간 오픈했으나 모두들 내일을 위해 잠자리에 들었다. (계속)

가정의 벗 한국일보

◆이번주 TV한국◆
— 채널 47

10월29일(목) 낮12시~12시30분
10월30일(금) 밤11시~11시30분
11월 2 일(월) 낮1시~1시30분
기록영화"한국"
패티킴 쇼
영화"마른자리"(마지막회)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W
B.536-1692
R.245-3539

한국 중공 누르고 4위

세계여자 핸드볼, 소련우승

(몬트리얼-정관성 지국장) 핸드볼 한국여자대표팀은 아시아의 최강 중공을 물리치고, 대회종합 전적에는 비록 4위를 차지했으나 아시아의 최강자가 됐다.

제4회 세계여자주니어핸드볼선수권대회에 출전한 한국팀은 몬트리얼 올림픽스타디엄에서 40여 교민들의 열띤 응원속에 진행된 대회마지막날 경기에서 중공을 28 : 20으로 가볍게물리쳐 결승리그전적 2승2패 종합순위 4위를 차지했다.

이날 한국팀은 지난4월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패했던 중공팀을 탁월한 개인기와 정확한 패스로 통쾌한 설욕을했다.

한국팀이 비록 처음 예상목표인 동메달을 못땄으나 아시아권 지역에서는세계에서 최초로 4위를 차지한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 동메달을놓고 한판을 벌인 서독과의 경기에서는 신장의 열세와채력의 차이로 시종일관 리드당해 12 : 19로 분패했다.

24일 서독과의 경기는신장의 열세도 문제였으나숫이 골·포스트를 맞고 나오는등 불운도 겹쳤다.

22일 소련과의 경기에서도 한국팀은 34 : 24로 패했었다.

대회를 마친후 한국대표팀의 홍단장은"죄송하다. 성원해준 교민들에게 감사하며, 이번 대회에서 우리도 하면된다는 자신이 생겼다"고말했다.

이 대회중에는 박종구몬트리얼한인회장이 한국팀의 전게임을 비데오로 촬영, 한국팀에게 전했다.

오타와 한국대사관에서도 이재관 공보관을 비롯, 직원들을 보내 이규현대사의 만년필 선물을 선수단에게 전하면서 노고를 치하했다.

몬트리얼한국총영사관에서 김창훈 총영사를 비롯, 영사관 직원들이 물심양면으로 선수단을 도와주었다.

문화오락성 헤사드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회시상식에 한국팀은 통역을 맡은 홍성희양의 태극기를 선두로 입장했다.

이번대회 우승에는 소련, 2위 유고, 3위는 서독이 차지했다.

결승리그 전적과 순위는 다음과 같다.

▲종합순위
1위 : 소련
2위 : 유고
3위 : 서독
4위 : 한국

▲결승리그전적
21일 한국28 : 20덴마크
22일 한국 24 : 34소련
24일 한국12 : 19서독
25일 한국28 : 20중공

이호씨등 국정자문위원일행 방미

포드 전대통령과 환담

30일 토론토방문 교민들과 환담예정

미국을 방문중인 국정자문위 이호, 김정렬, 김종완, 홍문산위원등은 23일 상오 제럴드·포드 전 미대통령을 만나 30분간 환담했다.

팜스프링 자택에서 이 일행과 만난 포드 전 대통령은 양국간의 우호증진을 다짐했다고 페니·서클보좌관이 밝혔다.

이날 위원들은 포드 전대통령이 미대통령 재임기간중에 보여준 한국에 대한 우호정책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이들은 포드 전 대통령이 가능한대로 한국을방문해주도록 초청했으며, 포드대통령은 사정이 허락하는 한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답했다.

방미중인 국정자문 위원들을 30일 토론토를 방문, 교민등 관계자들과 환담할 예정이다.

인민군과 적위대 충돌 1백명 사상?

〈서울본사전화〉북한 청진 시내에서 지난9월초 북괴인민군과 노동적위대간에 무력충돌이 벌어져 1백명의 사상자가발행했다고 동경에서 발행되는 통일일보가 23일 보도했다.

통일일보는 이같은 무력충돌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북괴노동당 중앙위원회가 김정일과 인민군참모총장 오극열및 노동적위대 총사령관 오백용을 청진시에 급파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3인은 당시 청진시에 급파돼 있었기때문에 9·9일 북괴창건기념일에 참석치 못한것으로 전해졌다.

도서바겐세일

토론토내 도서관 2곳 에서 도서바겐세일을 한다. 일반도서는 권당 25센트, 페이퍼백은 10센트이다. 시간과 장소는 다음과 같다.

◇10월28일 Hillcrest도서관 (5801 Leslie St.) 하오3시~6시 하

◇11월7일 Downsview도서관 (2793 Keele St.) 상오10시~하오3시

社告

이전파티에의 초대

저희 〈한국일보-토론토〉사는 지난 5월1일 사옥을 이전했읍니다만 아직 교민 여러분을 새 사옥에 모시는 기회를 마련치 못했읍니다.

이에 따라 본사는 해가 바뀌기 전에, 또 세모(歲暮)의 어수선함이 다가오기 전에 평소 좋은 말씀 주시고, 물심양면 도움주신 필자, 독자, 광고주, 선후배 제현을 잠시 모시는 기회를 마련키로 했읍니다.

분망하신 가운데라도 일차 찾아주시면 큰 영광으로 생각하겠읍니다.

때 : 1981년11월14일(토) 하오2시~하오7시
곳 : 본사 1025 DUPONT ST. TORONTO
(도버코트·로드 서쪽)
전화 : 533-2361

※개별적으로 초청장을 드리지 못하오니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일보 —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 믿고 살 수 있는
「로렉스지정판매 대리점」
(B) 534-9977. (R) 424-2599
635 BLOOR ST.W. (한국관 앞)

강찬영 변호사
534-1129
534-1120
484 BLOOR ST. W
(Bloor & Bathurst)

강학수 종합보험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서 울 식 품

교민을 위한 김장철 최대의 써비스! 최고의 저렴한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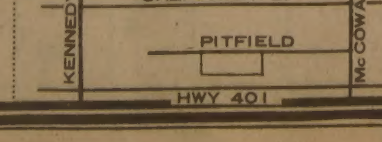
— 물건이 매진 될때까지 세일 합니다 —

	REG.	SPEC
●불고기등심 최상급 Lb.(10파운드제한)	2.69	2.20
〃 중 급 Lb.(10파운드제한)	2.49	1.96
●갈 비 Lb.(BOX제한없음)	1.69	1.29
냉동갈비 Lb.	1.49	1.05
●소 꼬 리 Lb.	1.35	.95
●참기름 깡통(일본제품) A품	10.90	9.50
〃 B품	10.50	7.40
●명 간 장 1gal.		6.90
●양 잠 피 1kg	2.25	1.80
●삼양라면 1박스(50개)당 15봉지 FREE(곧도착예정)		
●삼양냉면 1박스 5인용(1박스제한)	24.00	19.00
●청수냉면 1박스 2인용(1박스제한)	24.00	19.00
●오징어젖 Lb.(특별가격)		.80

	REG.	SPEC
●멸 치 젖 Lb.	2.99	1.99
●어리굴젖 Lb.	4.90	2.90
●한국고추가루 Lb.	3.95	2.90
●각종선물용 상품(gift) — 20% 할인		
●마늘·생강(특별가격)		1.45
●찹쌀고추장	2.50	1.99
●된 장	1.50	.99
●달걀(1다즌, Large)		1.25
가게하시는 분은 1다즌당 1.23에 드림		
●물 미 역	1.39	.99
●무, 배추(1박스 구입시) 김장용 갈치젖($2.90) FREE		
●무, 배추(2박스 구입시) 닭표간장($2.95) FREE		
●무, 배추(3박스 구입시) 한국산 굴($8.00상당 2파운드) FREE		

주소 :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



DEAR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2ND CLASS MAIL NO. 5248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e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81 월드시리즈

다저스 홈그라운드 텃세

양키스 세번 연속 물리쳐

25일 LA다저스 구장에서 속개된 월드시리즈 5차전에서 LA다저스는 우수한 투수력과 두개 홈런으로 뉴욕 양키즈를 2－1로 눌러 5만6천관중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고갔다.

이로써 다저스는 뉴욕·양키 스타디엄에서의 1, 2차전 연패이후 홈그라운드 3, 4, 5차전을 연승, 통산전적 3승2패로 월드시리즈 우승외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이날 다저스는 투수 제리·루스가 9회까지 완투하여 5안타 1점으로막는 호투를 했다.

제리·루스는 인사이드·아웃사이드로 낮게 깔리는 강속구를 던져 양키즈팀의 타봉을 교란하였다.

2회초 다저스는 세컨드·베이스맨 대이비·룹스의에러로 1점을 허용했으나, 7회말 페드로·궈레로와 스티브·이거의 홈런으로 2점을 만회 승부를 굳혔다.

이날 8회말 다저스공격때 4번타자 론·세이는 양키즈 투수 리취·구세지 가 던지는 시속100마일의 강속구에 머리를 맞아 병원으로 실려갔으나 다음시합에 지장이 없는것으로 알려졌다.

다저스 탐·라소다감독은 "우리는 막강한 양키즈 에게 1, 2 차전을 연패했으나 굴복하지 않고 싸워 기선을 잡았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뉴욕에 가 남은경기 중 하나를 이기는 일 뿐이다"라고 기염을 토했다.

월드시리즈가 시작되기 전 대부분의 전문가와 도박사들은 양키즈의 승리를 점쳤었다.

6차전 부터는 양키즈 스타디엄으로 장소를 이전, 27일부터 경기를 벌인다.

호화여객선 한국운항

퀸·엘리자베드2호도

(서울26일=연합)퀸·엘리자베드 2호및 서너개의 호화여객선들이 내년부터 정기적으로 한국에 운항할것이라고 26일 한국관광공사가 밝혔다.

이와같은 결과는 동 관광공사 뉴욕지점의 꾸준한 교섭이 주효한 것이다고 동공사 대변인이 밝혔다.

놀웨이지안 아메리칸 운항과 커나드여객의 두 해운회사는 이미 내년부터 부산을 정규기항지로 결정했다는 통보를 동관광공사에 보내왔다.

이와같은 결정으로 750명의 승객을 수용할수있는 2만5천톤의「재가프요드」와 1,500명 수용의 「퀸·엘리자베드2호」는 각각 내년 2월과 3월에 한국을 방문한다.

이같은 호화여객선은 5개월간 세계를 두루 돌아다니며 유럽, 미국, 동남아시아의 주요항구들에 들른다.

동 대변인은 세계적 호화여객선들의 한국운항은 관광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합작집 착수

문협 월례회

지난 23일밤 이태준 회원댁에서 근 20명의 회원으로 열린 문인협회 월례회는 이미 한국시절부터 기성작가인 홍기만씨를 만장일치로 문협회원으로 맞아들였다.

또한 사업계획으로 2. 3개월 안에 합작 제4집을발간키로 결정, 회원작품 접수는 월말로 끝내기로 했다.

문협은 과거 3권의 합작집－〈새울〉(77년)·〈이민문학〉(79년)·〈이만도시〉(80년)을 낸바 있다.

또한 현재 제5회「신춘문예」를 현상모집중에 있는 문협은 지난 77년부터 이를 실시, 4년간 19명의 신인(78년1월1일, 4명·79년 6명·80년 2명·81년 7명)을 이땅 이민문단에 등장시켰다.

"범용기" 출판기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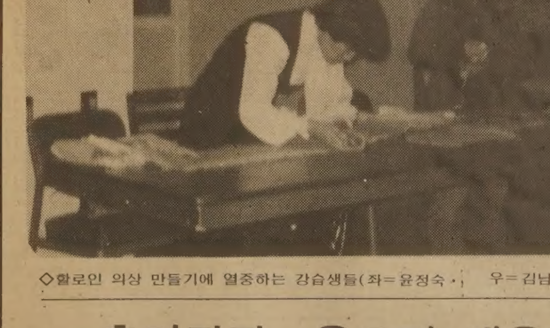
김재준박사 자서전

장공·김재준 박사의 저서 〈범용기〉 출판기념회가 11월1일(일) 하오6시 토론토한인연합교회(300 블루어·웨스트) 친교실에서 열린다.

이 책은 김목사의 자서전 제1부로 80회 탄신기념 출판이라 할 수 있다.

이날 참석자에게는 저서를 실비로 제공, 만찬도 대접한다.

한국신학대학장등을 역임한 교육자이며 종교지도자인 김박사는 저술가로 〈장공·김재준저작전집〉(전 5권)을 비롯, 수십권의 저서도 있고, 최근까지 월간 종교잡지 〈제3일〉을 발행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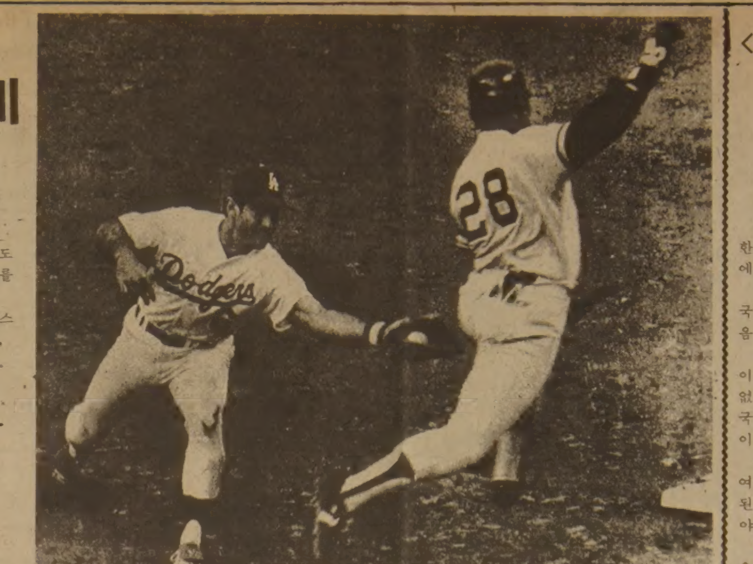
◇할로인 의상 만들기에 열중하는 강습생들(좌=윤정숙·, 우=김남정 양씨)

흥미진진, 웃으며 배우며

처음시도된 할로인 의상만들기

지난15, 16일 토론토한인 YMCA회관(15 로비나 애비뉴)에서 열린 첫 할로인 의상만들기 강습회는 의상전문가 배운송여사 지도로 6명의 수강자들은 한명이 2벌씩 만드는 열성으로 조촐하나 알찬 성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대개 가게경영 여성들인 수강자들의 열의와 진지한 수강태도에 감탄했다는 강사 배여사는 연말가까이성탄의상(산타클로스의상등) 만들기 강습회도 계획중에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아웃? 다저스 1루수 스티브·가비가 양키스의 봅·왓슨을 태그하고 있다. 사진에서는 분명히 타치를 미스했으나 1루심판 리치·가시아는 아웃을 선언했다.

생명공학, 복지사회에 불가결

한국과학기술원 촉구

(서울24일=연합)한국과학기술원은 24일 생명과학과 생명공학을 국가정책산업으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서 동기술원은 유전공학에 기초한 생명과학(Bioscience)과 생물공학(Biotechnology)의 발달은 복지사회 건설의 필요조건이라고 말했다.

동 기술원은 내년부터시작되는 제5차 경제개발5개년계획동안 유전공학 발전을위해 정부는 3백억원(미화 438십만달러정도)의 예산배정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와같은 움직임은 최근 미국 생명공학회사가 암세포의 증가를 막는"기적의 약"이라고 알려진 항암제·「인터페론」의 대량 생산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자극을 받아 더 활발해 졌다.

과학기술원 보고서는 동기술원과 그 밖의 지역연구단체에서 자주이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 정부의 협조를 구했으나 별다른 반응을 얻지못해 아직도 이 방면의 발전은 요원한 상태라고 말했다.

동 보고서는 생명과학과 생명공학의 생산품은 79년도, 총산업제품생산의 3%선에서 제5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끝나는 86년도에는 5%선으로 증가해야 된다고 말했다.

생명과학과 생명공학 발전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항암제 인터페론과 성장호르몬 생산, 식료품과 농약품의 안전향상, 환경공해로 인한 인명손실의 감소에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동 보고서는 강조했다.

생명과학과 생명공학 촉진계획의 또다른 하일라이트는 의료시설및 기구생산의 국산화를 50%선으로증가, 86년까지 의료시설수출을 4억달러로증가, 새로운 농산품의 개발, 생명에너지의 개발과 활용, 초음파 진단기구의 개발등이다.

또 동보고서는 생명과학과 생명공학은 에너지절약 및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최소투자로 최대효과를 낼수 있는 산업이라고 덧붙였다.

플로리다, 뉴욕행항공료 인하

버팔로→뉴욕$23, →잭슨빌$59

U·S Air에이어 People Express가 버팔로발 뉴욕행 항공표를 단 23달러(미화)에 팔기 시작했다.

싼 항공요금을 위주로한 동 항공사는 플로리다의잭슨빌·사라소타행도 59달러, 69달러에 각각 판매한다.

버팔로를 기점으로 미국내 10개도시를 운항하는동 항공사는 현재 보잉737 11대를 소유하고 있으며, 내년봄에 6대를 늘리기로 했다.

동 항공사 티켓은 여행사를 통하지않고 기내에서 직접 판매하며, 예약을 받고있다. (716－845－5260) 여객들은 소형가방 한개씩 갖고 탑승할수 있으나, 화물체크를 받는 가방들은 1개에 3달러씩 추가지불해야 한다.

뉴욕행 비행기는 주중에 밤7시 이후와 주말에 떠나며, 잭슨빌행은 상오 9 시15분, 사라소타행은 하오 3 시 5분에 떠난다.

토론토에서 버팔로 까지 가는 번거로움을 생각하더라도 가격은 훨씬 싸다.

(버팔로→뉴욕 정규요금편도 $107) 버팔로까지가는 방법은 자동차로가면 공항 주차장을(1일$4)이용할수있고, 버스와 리무진써비스를 이용하면 약 16달러가 든다. 버팔로 버스터미날서 공항까지는 리무진 써비스(예약 716－633－1473)가 매 시간마다 있다.

〈제 언〉

조국은 하나

— 북한방문 문제의 재고(再考)

박 부 용

작금에 와서 빈번히 북한을 방문한다는 일부교민에게 이 글을 부친다.

「나이 조국,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변함이 없다.」

이 말은 어떠한 조건 과 이유와 환경이 결부될 수도 없고, 당연지사로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하는 말이다.

아무리 조국을 떠났다 하여 망각된 상태에서 왜곡된 언사와 행동을 하여서야 되겠는자!

이세상에서 가장 귀한것은 금은보화도, 훌륭한 집도 아니며, 좋은 음식이나 옷도 아니다. 이것들이 귀하지 않은 바 아니지만 그보다 더욱 소중하고 귀한것은 인간이다.

인간이 있기에 비로소 그러한 재물들이 그 가치를 지니게 되며,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인간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인간이 그것을 위하여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세상의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자유 민주국가에서는 인간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

이에 반해 공산주의는 인간을 무시한다. 공산주의자들에게 가장 귀한 것은 당(黨)이다. 모든 사람은 당을 위하여 살고 죽어야 하는 목숨이고, 이것은 주인과 객(客)이 뒤바뀐 논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공산주의에서는 「개인」이라는 것이없다.

공산주의 북한!

최근에 북에 다녀온 교민들이 북의 동향을 어떻게 간파(看破)하고 왔는지 모르겠다. 악랄한 선전과 감추어진 북의 진상을 말이다. 오늘날 북한의 실정은 체제상 소련과 중공을 포함한 모든 다른 공산국가들과 다를바 없으나 북한 공산당의 통치방법과 수단은 다른 공산국가보다그 잔혹함에 있어 한술 더 뜨고 있다.

새삼스럽게 교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재보(再報)하는 것이 우습겠으나 일부교민들을 위해 홍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해있기를 바란다.

북에 다녀온 일부교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북을 찬양하고 선전하고 있다는 것이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귀향회」란 단체가 있어 북쪽에 고향을 두고 온 월남교포를 고향방문이란 명분을 내세워 북을 방문토록 종용하고 있다.

고향도 좋고, 혈육을 찾는 것도, 여행도 다 좋은 일이다. 그러나 분단의 아픔으로 신음하고 있는 1천만 월남가족들을 생각할때나 하나쯤의 생각을 버리고 평화적 통일의 그날까지 기다려 달라는 것이다. 북을 다녀온 교포가 많을수록 조국통일은 멀어져만 간다는 것이고, 1천만 분단가족 가슴에 원한의 못을 박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해외에서 바라보는 분단된 조국의 실정을 좀더 깊이 자각하고, 나 하나의 노력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크나큰 도움이 되리라는 자부심을 갖고, 우리 교민들이 외부세력, 즉 북한이 우리에게 악랄한 선전을 하고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을 기르고 타개하자는 것이다.

그리하여 해외 에서나마 조국통일 대열의 한 일원으로서 번영된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조국이 자랑스럽고, 후세에게 우리는 이러한 일을 하였노라고 이민역사에 남길 수 있어야 하겠다.

우리 세대에 이어지는통일의 숙제를 후세에게까지 남겨줄 수는 없을 것이다.

(필자 : 캐나다 토론토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移民과여행자를위한 생활英語

담당 민 병 철 【美시카고영어연구원장】

I' M BEHIND IN MY 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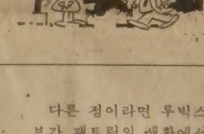
밤 늦게 귀가한 남편에게 부인이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셨어요?」 Why did you come home so late? 라고 묻자 남편이 I had stay at the office. I' m behind in my work. (일이 밀려서, 사무실에 있어야만 했었지.) 라고 대답하였다.

이와 같이 「일이 밀려 있다」를 미국인들은 I' m behind in my work. 라고 표현하고 있다.

「공부가 밀려 있다」는 I' m behind in my studies. 「세가 밀려 있다」는 I' m behind in my rent. 와같이 하면된다.

미식 발음에서 behind(비하인드)를 「브하인드」로 발음하는 것을 자주 듣게 되는데, 이것은 자음 다음에 짧게 발음하는 e가 있을 때 자음에 붙여서 발음하므로 결국은 e는 생략되고 자음만 발음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believe (블리브), below(블로우), deluxe (드럭스) 등과 같은 이치이다.

Weather forecast (일기예보) 시간에 「영하 3도」를 발음할 때에도 It's three below zero. 비로우 지로우라기 보다는「블로우 지로우」 같이 흔히를 발음하고 있다.



A : Why did you come home so late last night?
B : I had to stay at the office.
A : Why?
B : I' m so behind in my work, it' ll take several evenings to catch up.
A : Is there anything I can help you with?
B : I wish there was.
A : 간밤에는 왜 그렇게 늦게 집에 들어 오셨지요?
B : 사무실에 있어야 했었지.
A : 왜요?
B : 일이 하도 많이 밀려서 처리하려면 며칠 저녁은 걸릴거야.
A : 제가 도와 드릴 일이 있나요?
B : 그랬으면 좋겠지만 없는 걸.

※late : 늦게, lately라고 하지 않것. (lately는 최근의 뜻임).
catch up : 뒤좇아 미치다. I can catch up on my work over the weekend. 주말에 밀린 일을 처리 할 수 있을 겁니다.
【발음】 believe (블리브), below (블로우)

13세소년의 베스트셀러

패트릭군의「루빅스 큐브 해설집」

13세의 어린소년이 113페이지에 달하는「루빅스큐브」(루빅의 정육면체)해설집이〈뉴욕타임스〉가선정하는 페이퍼백 베스트셀러명단에 올라 화제가 되고있다.

화제의 인물은 런던에살고있는 패트릭·보서트군.

패트릭은 아무리 복잡하게 얽혀있는 루빅스큐브일지라도 90초 이내에 각면을 같은색으로 맞추어내는 비상한 실력가이다.

베스트셀러 소식을 듣고 패트릭은「그렇게 잘 팔릴줄은 몰랐다」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패트릭은 책을만들 생각없이 그의 친구들에게 해설을 4장의 종이에 프린트해서 돌렸는데, 팽귄북스의 번역이 됐고, 크리스마스시즌을 위해 28분짜리 비데오 카세트도 제작중에 있다.

다른 점이라면 루빅스큐브가 패트릭의 생활에서빼놓을수 없는 중요한 물건이라는 점이다.

패트릭은 8개월전 스위스에있는 할머니댁을 방문중 처음으로 루빅스큐브를 대하게 됐다.

「나는 항상 3차원의 물체와 퀴즈에 관심이 많았어요. 루빅스큐브는 수학적인면 보다는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패트릭은 각면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해답을 얻을수 있다고 조언했다.

루빅스 큐브 맞추는 방법을 논리적으로 푼것
NYT의 페이퍼백 베스트셀러 랭킹에 올라
1년동안에 75만부 팔리고 각국어로 번역도

고급간부인 한 친구의 아버지가 루빅스큐브가 어린이들에게 대단히 인기가있음에 착안, 책을 발행하게 됐다.

지난해 7월에 초판이 발행된 이 해설집은 현재 75만부가 판매됐으며, 덴마크어, 포르투칼어, 그리스어로 다.

패트릭은 출판 인세로만 6만달러를 벌어들였다.

책이 날개돋힌듯 잘팔리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패트릭은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다니는 순진하고 조용한 어린이로 동년배 아이들과 다를바 없다.

그때부터 루빅스큐브에 심취한 패트릭은 빠른 속도로 이것을 풀어나가기시작했다.

패트릭이 큐브를 잘푸는 것이 알려지고부터는 패트릭의 집에는 풀다가 못푼 큐브를 들고오는 어린이들로 항상 붐비고 있다.

루빅스큐브는 각면마다 색이 다르며, 그 속에 색이 다른 9개의 작은 정육면체를 움직여 큰 정육면체의 각면을 같은 색으로 통일 시키는 게임이다.

한국일보 533-2361

목돈 만드는 신용적금 목돈 주는 적금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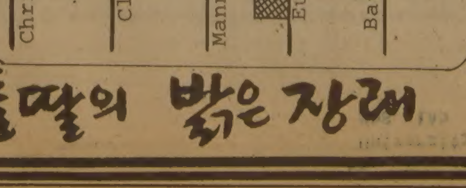
사무실 확장이전 공고

일익 성장하고 있는 한인신용조합은 보다나은 대 조합원 서비스와 업무개선을 위하여 사무실을 새롭게 단장 이전하옵기 알려드립니다.

이전사무실 : 641A BLOOR ST. W. M6G 1L1
현 장소에서 동쪽으로 약200미터 한국관 건너편 코너

영업개시일 : 1981년 11월2일 영업개시일 :

영업시간 : 평일－상오10시부터 하오6시까지
토요일－상오11시부터 하오4시까지



PLAN24(DAILY SAVINGS)

한인신용조합에서는 증소이전과 더불어 11월부터 매일매일 이자를 계산하여 드리는 새로운 예금을 실시합니다.

현 행 예 금 이 율 표 1981. 10. 26현재

	SAVINGS	정기예금			
		30－80 ds	90～179 ds	180～364 ds	1 year over
당 신용조합	% 17.25	% 18.00	% 18.25	% 18.25	% 18.00
일반은행	16.75	17.25	17.00	16.35	17.00

※일반은행에서는 $5000.00미만은 0.5% 가량 더 낮음.

TEL:533-9387,9388 (종전과 같음)

내 아들딸의 밝은 장래 어린이 적금과 성장저축으로 보장하자!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0. yr. $8. mo. 구독료(선금)연 $90, 월$8,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416)/533—2361~4

주먹구구로 따져 10億이라지만 —

아무도 모르는 中共人口

人口팽창 놀란政府 1子女운동
유엔援助로 來年첫본격 센서스
53년이후 調査 한번도 없어

중공은 내년 6월30일 자정을 기해 실시할 총인구조사(센서스)를 1년 가까이 앞두고 그 준비작업에 한창 부산하다.

금세기 최대의 미스터리 중의하나, 즉「중공인구는 과연 얼마나 되는가」라는 신비의 껍질이 이번 센서스를 계기로 벗겨질 전망이다.

중공의 이번 총인구조사는 유엔으로부터 1천5백만달러의 재정지원을 받아 실시되는 것으로 이 센서스에 동원되는 미제 컴퓨터들은 중공의 각성별인구동향 및 직업별 인구분포상황을 조목별로 상세히 밝혀낼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센서스의 결과를 성급하게 기다리지 않는것이 좋을것이다.

왜냐하면 이번 센서스를 위해 마련된 자료들 자체만의 숫자도 워낙 엄청나 최종 집계는 실시후 1년여가 지난 오는83년말께나 밝혀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번 센서스는 지난53년이래 오랜 공백기끝에 실시되는 것인데 한 외국인 전문가는 당시의 센서스가 주먹구구식 이었다고 지적했다.

53년당시의 센서스결과 약 6억으로 추산됐던 중공인구는 오늘날 전인류의 5분의1에 해당하는 약10억규모로 급증했다.

중공의 국가통계국은 지난 4월 80년말 현재 중공의 총인구가 9억8천2백55만명이며 여태까지의 인구증가추세가 지속될 경우 오는 82년말까지에는 10억을 돌파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그러나 국가통계국의 이같은 수치는 이미 전례가 있듯이 부정확한 정보에 근거를 둔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신뢰할수가 없는 것이다.

내년의 센서스는 현대식 장비에다 완벽한 준비태세 및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뒷받침되는 것이긴 해도 이역시 각종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실례로 자녀4명을 둔 가정의 경우 정부당국이 한가정 한자녀를 강력히 주지시키고 있는만큼 자녀숫자를 사실대로 밝히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어처럼 많은 자녀를 거느린 가정들은 또한 식량배급표가 줄어들 것을 염려하여 혹시 자녀가 사망하는 일이 있다하더라도 이같은 사실을 밝히려 하지 않을 경우가 많을것이다.

중공당국은 이번 센서스가 센서스라는 단순목적이외에 절대로 다른 용도에는 사용되지 않을것임을 주지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대민홍보활동을 벌일 예정으로 있다. 그러나 많은 주민들은 이번 센서스결과가 혹시 자신들에게 불리한일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하는 문제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엉터리 결과가 나올 공산이 크다.

많은 중국인들은 천성적으로 스스로의 삶과 직업에 대해 그다지 미래지향적이지 못한 편인데 실례로 중공관리들에게 직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할 경우 그들은 으레 정부내 모부서의 책임자라는 정도의 대답을 하는것이 고작이다.

이같은 중국인들의 천성이 이번 센서스 담당자들을 곤란하게 만들것은 물론이며 따라서 이번 센서스를 토대로 고용문제를 해결하려할 경우 구체적이고도 신중한 별도의 분석이 뒤따라야만 할것이다.

뿐만아니라 한때는 잦은 단전사태에 대해 불가항력적인 것이었다는 해명이 있기는 하지만 중공내 발전소들이 과연 이번 센서스에 동원된 컴퓨터들의 가동에 지장을 주지 않게끔 차질없이 전력을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센서스에 사용되는 컴퓨터들이 무리없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어야 할것은 물론인 것이다.

미국정부는 한때 중공당국이 미제컴퓨터를 센서스 이외의 다른 사악한 목적에 적용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때문에 대중공 컴퓨터 공급중단 사태를 빚기도 했었다.

그러나 알렉산더·헤이그 미국무장관은 지난6월 중공방문 중 미국이 필요한 한도내에서 대중공컴퓨터 판매를 승인했으며 이미 인도가 시작됐다고 확인했었다.

한컴퓨터전문가에 따르면 이들 미제컴퓨터는 최신형도 아니고 또한 가격도 비싼것이 아니며 다만 라이트·소프트웨어·패키지(컴퓨터의 기능을 활용하기위한 프로그램등의 총체)에 연결될 경우에 한해서 위험상태가 될수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공의 센서스담당자들은 중공주민들이 이미 고도로 조직화돼 있고 또한 각종 기본적인 정보가 수록된 공식문서들이 많다는 큰 이점을 갖고있다.

그러나 중공은 외부세계에 가끔씩 비치듯이 아주질서가 잘잡힌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상해에 주민등록을 한사람이 다른지방에서 이중으로 센서스에 응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러나 중공관리들은 전반적으로 이번 센서스에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북경의 서방외교관들 역시 이번 센서스에 임하는 중공당국의 진지한 태도에 고무되고 있는데 한외교관은『중공당국자들이 이번 센서스를 정확하게 치르기 위해 대단한 결심을 했다』고 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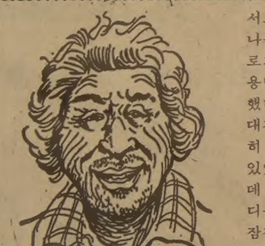
비록 이번 센서스의 정보처리과정 및 결과는 오는83년말 이후에나 확실히 밝혀지겠지만 그결과는『중공의 정책입안자들이 향후수년간 대단히 요긴하게 사용할 엄청난 물적재산』이 될 것이라고 이외교관은 덧붙였다.

광고는 사업을 번창시킵니다
문의처
본 사 광고국
533—2361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83)

팔리·모왓 원작, 원재훈 옮김



실지로 두번째는 아마도 가장 중요한 이땅의 법률일런지 모르지만 식량과잡비 혹은 모든사람들이 신체적으로 기운이 충분할때는 아무도 이런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믿음이 가장 실질적이고또 가장 좋은말로 표현하자면 모든 물질을 공유하도록만 들었다. 그렇지만 아직도 캠프에는 개인 소유권이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역설을 포착하기란 쉽지않다. 다시말해서 장비는 한사람의 개인소유물이거나 한가족의 재산이다. 그러나 만일 어떤 낯선사람이 창이 필요해서 찾아왔다면그는 눈에보이는 아무창이나 들고간다. 보통은 주인의허가를 물어보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고, 직접적인 대답을 기대하거나 주지도않는다 그창이 이제 그의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볼일을 보고서 돌려줘도되고 않줘도 좋다 왜냐하면 그가 필요해서 빌려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체계는남용되지 않는다.

지각을갖고 또 정말로필요해서 꼭 그렇게 해야만 할때 이런일이 일어나기때문에 이런 체계가 바렌에서 사람이 살아갈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창이 꼭 필요한 사람은 만일 시간과 재료가 있다면 본인을 위해서 반듯이 창을 만든다. 그러나 급하게 창이 필요한 사람이 옆집에서 가져가면 그것은 호의로 그사람에게 아주 주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소유권에 대하여 그 진정한 뜻을 이해할때까지는 나를 매우 괴롭게 만들었다. 내가 처음으로 이할미우트 사람들과 섞여 살게 되었을때 그들은 백인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들 서로를 취급 하는것 처럼 나를 취급했다. 그들은 서로가 다른사회와 법률과사용법의 차이를 이해하지못했다. 예를들어 내가 2차대전 참전기념품으로 소중히 여기는 라이플이 하나 있었다. 이 총은 사슴잡는데 매우 적합했고, 내가 어디를가나 갖고 다녔으며, 잠잘때는 옆에 두고잤다.

나는 이 총을 오락이나 스포츠로 사용하지 않고, 앤디와 내가 꼭 고기가 필요할때 이 외에는 여간해서 사용하지 않았고, 또 에스키모들이 항상 고기를갖다주어서 그럴 필요가 없었다.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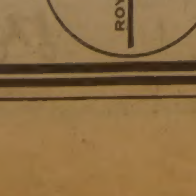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가나안교회 창립 제2주년
기념 부흥성회

"어찌하여 자느냐"
존경하는 교민여러분 주님의 크신 은총이 귀가정과 하시는 사업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저희 교회에서는 창립2주년을 맞이하여 "백화기"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의 잔치를 베풀고저 하오니 바쁘신 중에도 부디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사소개 : 학력—대구개명대학졸업
한국신학대학졸업
침례교신학대학및 대학원졸업
캐나다크리스찬대학졸업
경력—포항침례교회담임
영남침례신학교 교장
한국침례회 총회 총회장
포항시 기독교 연합회장
한국부흥사협회 회원
사모아 선교회 이사
미국, 캐나다, 일본, 멕시코 등지 부흥집회
강 사 : 백 화 기 목사

일 시 :
1981년11월13일(금)
〃 14일(토)
〃 15일(주일)
오후7시30분
장 소 : 가나안 장로교회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로얄·욕크와 에그린톤 만나는 지점에서 한 골목 북쪽)



가나안 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정준및 교인일동

1981—82 학년도
씨알학교 학생모집 안내

기 간 : 1982년6월19일까지(32주간)
시 간 : 매주 토요일 아침10시부터 오후3시까지
장 소 : DEER PARK PUBLIC SCHOOL, 23 FERNDALE AVE.
자 격 : 유치반부터 8학년까지
프로그램 : 10시부터 12시30분까지—한국어, 합창
1시부터 3시까지 —예능교실, 영어교실
과목과강사 : 한국 어 : 김숙희, 김옥자, 이영자, 여정자(한국적인 정신, 풍습, 예절, 생활용어등에 중점을 두어 말과 쓰기로 표현을 지도함)
합 창 : 유희자(내년에 계획하는 한국방문의 모체가 될 것임)
피 아 노 : 여정자(초보자를 위한 악보읽는 법, 리듬등에 중점)
바이올린 : 임혜영(수즈키 지도방법 사용)
미 술 : 김옥자, 이영자(어린이 지능과 상상력 발달에 중점)
무 용 : 김미영, 오재윤(철저한 기본동작과 독무, 군무등)
태 권 도 : 이태우(신체단련을 통해 인내력과 자신감 양성)
영 어 : 조덕인(독해력 중심, 2~8학년 만)
수 업 료 : 한국어, 합창은 무료, 예능과 영어교실은 한 학생이 두과목씩 택할 수 있으며, 1년 수업료를 두번으로 나누어 연수표(Post Date Cheque)를 등록하셔도 됩니다. 학생1명—160달러, 학생2명—300달러, 학생3명—420달러
학교버스 : 동 쪽 : EGLINTON, DANFORTH, KINGSTON, GERRALD지역
서 쪽 : REXDALE, LAKESHORE, HWY27, 427, DUFFERIN지역
※현재 버스2대가 운행되고 있음.
신청전화 : 여정자 선생님 441—2986
버 스 비 : 학생1명—128달러, 학생2명—250달러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감퇴,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535-3520, 630-8491

구 인

스토아에서 일할 남자헬퍼구함(주40시간 이상)
MAIN & GERRARD ST. 지역
☎: 691-3363

산후 조리 해주실 분 구함
다운타운 지역, 우대함
☎: 923-4354

풀타임 남자헬퍼구함, 경험자에 한함:
오후3시~밤12시, QUEEN과 DUFFERIN
☎: 534-3338(아침9시~3시까지 전화) 미세스 김

봉재사 급구(고급 브라우스, 스카트, 바지)
시간당 $4 이상
292PARLIAMENT(DUNDAS에 가까움) ☎: 362-2300

"급 구"
① 윤전기및 인쇄용카메라 기술자
② 윤전기및 인쇄카메라 기술 배우실분
☎: 533-2361. 미세스 김

자수기계 OPERATER구함
경험있는 분은 월급이 많음
☎: 769-4726

재봉사 구함:
FINCH & DUFFERIN
☎: 636-8348

경험있는 풀타임 남자헬퍼구함:
미시사가 지역
☎: 823-2445(R), 822-4895(B) 미스타 심

얌전한 아기를 보아주실분 구함.
입주 또는 출퇴근 가능.
SCARB. E. ☎: 284-3031

주말에 가게에서 일할 경험있는 파타임
스카보로지역 학생헬퍼 구합니다.
☎: 267-4770

파트타임 여자헬퍼구함:
월~금 하오3시반~하오9시반, 토 상오8시~하오6시
☎: 598-1140 (칼레지 써브웨이 안에 있음)

FULLTIME캐쉬어구함:
경험있는 분에 한함, 학생도 가능
☎: 625-1620. 미시사가 지역임

가게 헬퍼가 필요하세요??
(한국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533-2361

매매및 양도

아파트먼트 싸이즈 맞는 피아노 팝니다:
$1,500
☎: 783-6871(낮), 636-1430(저녁)

좋은지역에 위치한 바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가정형편상 급매코자 함)
주매상: $3500~4000 리스: 4년
ASKING: 29000+스탁(좋은 OFFER를 줌)
주소: 1430 DUNDAS W.
☎: 531-0773 Mr.김 (직접내방바람)

77년형 폰티악 밴트럭:
5만 마일, 3천5백달러, 6기통
☎: 248-5472

KNOB FARM(러빌 팜)안에 있는 가게
세놓읍니다.
☎: 278-3975 270-7072(6시이후)

스토아달린 빌딩 팝니다.
☎: 653-4633
Mrs.코메스

몬트리얼이나 유럽에 있는 빌딩이나 회사를 사는데
투자하시기를 원하시면 연락바랍니다.
4521 PARK AVE. SUITE 320, MONTREAL, P. Q.
MONTREAL MANAGEMENT SERVICES Co.
☎: 849-0959, 7374~6

74년형 닷지! 밴트럭 팝니다.
성능이 우수함
☎: 248-4578 미스타 홍

핀볼 기계와 비데오 게임: 액셀런트 비즈네스 매매,
☎ 767-7998, 762-5455
OR 245-5544 PAGER #4701

스토아 매매
주매상: $4550
☎: 523: 7101(해밀톤)

삑커 프렌차이스 매매:
좋은 비지네스 직접내방원함(FINCH & BIRTCHMOUNT
(스카보로지역) ☎: 293-1893 (CALL 9AM~3PM)

T. V. & STEREO BUSINESS FOR SALE
●HIGH PROFIT, ●고급물품 전문메이커 취급,
TRAINING시킴, ●PREMIUM LOCATION.
●VIDEO TAPE MACHINE BUSINESS전망
●ASK. MR전, MR. 진 ☎: 745-5555

성업중인 햄버거 샵 팝니다
☎ 530-0748 DAVID

매매 ●도나스 캐비넷 셋트
●성업중인 햄버거 레스트랑15년 리스
☎ 535 2804 미세스 김

빌딩매매: ASKING $490,000, 4개 아파트와
음식점 최저 다운은 $100,000.
464 SHERBOURNE ST. 직접내방 요함

DRY CLEARNING PLANT FOR SALE
2 STORES GOOD INCOME
☎: 922-2241(ROSEDALE AREA)

메뉴펙츄얼 재고정리 세일:
자꾸, 단추, 함사, 씽글바늘재봉틀, 아이들 겉옷들.
148 AUGUSTA AVE. 2층
☎: 366-5439

이주 관계로 팝니다. 희망자 방문요망
햄버거, FISH & CHIPS, 스테이크 식당,
6일 매상 $2000(일요일 휴무)
23 HELENE ST. NORTH MISSI.
☎: 274-7010
CENTURY BURGER

일본식 식당과 SHOGUN라운지 매매:
일본식 식당: 85좌석, 라운지: 105좌석,
모든 시설이 완비되었으며 개업한지 3개월 되었음,
동업자나 사실분은 Correct Call로 연락바람.
HALIFAX, N. S.
☎: 집(902) 443-5789, 식당: (902) 429-6155
라운지: (902) 429-6955. MR. KIM

T. V. 스테레오 취급전문: 연매상 45만달러
아스킹: $7만+스탁
☎ 533-2400 미스타 김

도나스 샾 매매: 이윤 좋고 매우 전망이 좋은 곳에 위치
시간짧음 (주6일 열음, 하루 11시간 영업)
관심 있는분은 직접 내방요함 55 KENSINGTON AVE. Tor

성업중인 몬트리올에 위치한 그로서리
(맥주와 포도주 취급) 스토아를 급매코자함
주매상: 5천3백달러이상 보장, 권리금: 4만6천
+스탁(만달러 정도), 현금: 2만5천
☎: (514) 486-0944
(95% 영어지역)

매매(PINBALL MACHINE)
성능좋은 ELECTRIC혹은 ELECTRONIC TYPE 14대
가격 개당 $275~$475.
☎: 266-5037

A. M. F. M. 카셀(자동차) $85부터
CITY AUTO RADIO SALES SERVICE INSTALLATION
102 TURBINE DR. WESTON. ☎: 743-5669

●오릴리아 지역 하이웨이부근: 레스트랑, 가스바
(3.9에이커 면적), 에어콘, 3베드룸아파트, 아스킹
$149,500

●오릴리아-배리 가스-스낵바:
주요하이웨이, 에어콘시설.
$235,000+스탁

●오릴리아 버라이어티·기푸트SHOP
바쁜거리 3베드룸아파트, 엑스트라 가게,
렌트: $125,000+스탁, 보다 더한
보다 더한 소식을 원하는분
☎: 862-0788(Ex.) 53 WALTER CONSTABLE

※안내광고는 선불을 원칙으로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인벤토리

—인벤토리—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 쇄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 244-2301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주택전문 ☎: (B) 752-3111, (R) 298-2546
곽 석 용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바우종합광고회사
간 판 부: 각종전광/아크릴간판, 현수막, 윈도우사인
그래픽디자인부: 원색Catalog/Brochure/팜프렛/포스터/
상업도안/신문광고디자인 제작대행
인테리어디자인부: 일반상점실내장식,
건축설계 상담및 시공
인 쇄 부: 특수인쇄/도서(책자)편집출판 '82년도 호화판
한국달력주문제작중
T. P. ADVERSITING GROUP
OFFICE: 637A BLOOR ST. W. TOR.(은하보석상 옆)
공 장: 287 Horner Ave. Etobicoke.
전 화: 535-0647, 465-1722 대표: 송 관 현
시외지역 전화문의및 무료출장견적 환영

미 용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헬렌미용실 미세스 리
377 ALBION RD. REXDALE (B) 741-7829, 742-8731
한국식품서부지점에서 동쪽2번째 시그날에서 내리면 됨

킴스 미용실
☎: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 하우스 뒤)

구 혼

"구 혼"
냉동기술 1급 자격증 소유한 31세의 대졸남성
정숙한 여성원함.
☎: 654-1922. 김 윤 수

집·방세·하숙

방세놓습니다: 1 베드룸(살림할수있음)
BLOOR ST. W. 중심가
☎: 533-0168(PM1시~PM9시) 미스타 김

악기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조율 수리 SOO PIANO SERVICE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222-4662 김 수 웅

시설및 수리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669-5784 미스타 심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 전기일 일절 집, 가게, 공장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TV 출장 수리
☎: 431-0102 미스타 박

상하수도 전기제품 각종유리
PAINT 수리및 시설
☎: 535-4441 미스타 김

자동차유리: 전액무료(보험+회사)(NO DEDUCTIBLE)
자동차 실내외 장식, MOON'S AUTO TRIM & GLASS
☎: 638-0656(KEELE & FINCH) 정 해 문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438-3795 김 영 호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366-5655 531-5440 이 환 영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센츄리냉동 원종성, 이인식
☎: 221-5441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749-3178 김 진 환

여행사

한국여행사
593 BLOOR ST. W.
(B) 531-4607
(R) 487-8088 성 낙 윤

천우여행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신세계여행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서울여행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일여행사
621A BLOOR ST. W.
535-2377 유지원.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630-6602
나 라 운 수

자동차수리

L & K AUTO COLLISION
주소: 364 MUNSTER AVE.(BLOOR & 키플링)
☎: B) 231-6951, R) 742-5408 오 세 호

ROGERS GARAGE ☎: 651-9324(B)
자동차 수리 일체). 226-5430(R)
20 ROGERS RD. 변 달 원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써비스
95 PORTLAND ST. ETOBICOKE
☎: 255-2111(B) 828-5001(R)

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AUGA 전화: 273-7300

한방원

서울한의원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대한한의사협회장의 한의학발전공로표창장10여회 수상
※진료과목: 한방내과·신경과·부인과·침구과·산후보약
주소: 10 Blackfriar Av #216 Weston, Ont.(Kipling×Dixon)
☎: 247-9347 한의사: 김 장 석 (왕진함)

안강용한약건재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진품웅담●녹용●우황청심환●사향●경명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일주일 내내: 아침10시~저녁8시 (일요일도 OPEN)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매일10AM~8PM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피·리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B) 769-0609
R) 221-0560 여 정 웅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751-5851 이 동 환

정 춘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카펫·카텐

가나안카텐·카펫 브라인드 SHADE
2390 LAKESHORE BLVD. W.
☎: (B) 252-4857, (R) 252-6602 유 원 덕

카펫 크라닝: 카펫·소파·체어·자동차시트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기 타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 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증명사진
619 Bloor St. W. Tor. ☎: 534-1085 김 춘 학

다이아몬드·스타
공장가격으로 특별우대, 주문에 의해서 보증서 책임
신용본위 ☎: 537-0432(B), 534-3346(R) MR. 리

새한칼라 현상소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630 BLOOR ST. W. TOR.
☎: 535-7772

SOMÉ JEWELLERY 쏘메쎄라
●각종보석주문(공장도가격), ●옛보석을 새보석으로
●데자인, 보석수리(일본말 환영) ☎: 225-46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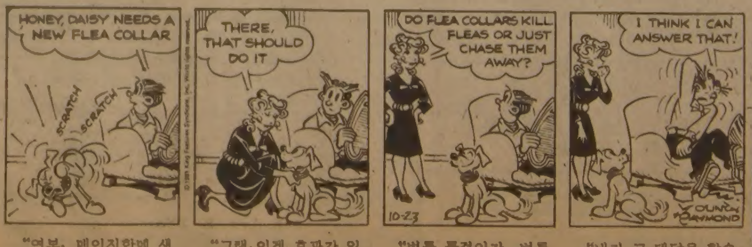
SUREKILLER
각종벌레, 개미, 바퀴벌레: 100% 효과보장
☎: 368-9018

니폰·비데오 센터: 많은 한국테이프가 새로구입
주6일 오픈. 1993 DANFORTH AVE. TOR.
☎: 698-0633 하마구찌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746-2120 조 해숙

한국일보
식품점서 판매중

블론디 딘·영 作 本社特約·連載漫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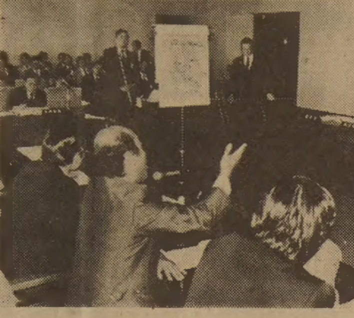


"여보, 데이지한테 새 벼룩 목걸이를 해줘야 되겠어" 바—바—
"그래, 이게 효과가 있을거야"
"벼룩 목걸이가 벼룩을 잡는거예요, 좇아만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대답을 할수 있을것 같은데!"

김인규
RIA
ACCOUNTING & TAX
844-0178

徵檢年齡 19세로 낮춰

國會常委 질문·답변 "地自制 우리實情맞게 연구중"



◇22일 국회建設委에서 建設행정에 관한 브리핑도중 의원들이 질의를하고있다。

附價稅폐지되면 더큰 混亂

洋·漢方一元化는 계속 검토 답변

국회는 22일 經科農水産 商工등 3개常委를 제외한 9개常委가 현황청취를 끝내고 일제히 정책질의에들어감으로써 이날부터본격적인 — 활동에들어갔다。각常委는 오는25일까지 정책질의를 벌인뒤 정부와 의원들이 제출한 각종議案과 일반안건을심의한다。

"低質炭 不當이득 算出차이 근거는"질문

外務委 盧信永외무장관은『韓日정상회담은 연기된일도 없으며 공식으로 결정된바도 없다』면서『韓日교섭은 가급적 빨리 해결하겠다는것이 기본방침』이라고덧붙였다。그는 또『在美교포사회를 88년 올림픽과관련 民族大和合의 정신으로 결속시키기위해 僑民정책을 새로이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內務委 徐廷和내무장관은『지방의회의 구성시기는 단계적으로 지방재정自立度뿐만아니라 다른문제를 고려, 우리실정에맞는 훌륭한것이 될수 있도록 기구를 구성하여 연구하는 단계에있다』고 밝혔다。그는이어『郡을연결하는 全國의 非포장도로는 IBRD(世界銀行)차관을얻어 83년부터 포장하도록 추진할계획』이라고 밝혔다。

柳興洙治安本部長은『10월들어 몇개대학에 불온유인물이 投入되었고 낙서도있었지만 소요라고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하고『학교당국에서 대책을 세우고있다』고 밝혔다。

玄敬大 金鍾(이상民正) 柳寅範(民韓) 李成一의원(국민)등은 內務部에대한 정책질의에서 ▲지방의회의 구성시기 ▲市道郡의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실태 ▲새마을金庫 감독권의 一元化 ▲落島지역 개발대책 ▲학원소요사태對策등에 관해 물었다。

財務委 李承潤재무장관은『새예산의 歲入규모가 올해의 세입규모보다는 22% 늘어났지만 지난5년동안의 평균증가율 33·5%보다는 훨씬낮으며 올해의 27·2%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하고『경제여건에 별다른 변동이 없는한 큰부담이없이 稅확보는무난할것으로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附加가치세가 시행초기에는 부작용이 없지않았으나 점차 정착되어가고있기 때문에 이제도를 전면 폐지하면 혼란이 가중될것이라고 답변하고『다만 稅부담의 불공평등 잔존하는 문제점을 계속 補完해 나가겠다』고말했다。

國防委 周永福국방장관은『내년부터 징병검사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낮출계획』이라고 말했다。이에따라 내년도의 징병검사는 20세가되는 60年生과 19세가되는 61年生중 1월부터 5월사이의 출생자가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병역의무자의 國外여행확대와 관련, 일반유학의 경우 귀국보장을 명확히 하기위해 병역법을 개정, 高校졸업자는 졸업석차 20%이내, 大學生의 경우 24세까지, 大學院生의 경우 26세까지 자격을 부여하겠다면서 시행시기는 내년 3월1일부터가 될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농촌지도자 육성을 위해 農大재학중 4H클럽회원으로 우수한 활동을한 학생에게 병역특혜조치를 주어 5년간 농촌지도자로 의무적으로 근무토록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면서 이방안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조속히매듭짓겠다고덧붙였다。

우수農大生에 兵役特惠

서울地下鐵3·4號線 完工 1년간늦춰

택시운전사 月給制 내년부터 부분실시

保社委 千明基보사부장관은『洋·漢方一元化생각을 갖고있으나 아직 정책적으로결정되지는 않았다』며『83년부터 화장품수입을 부분적으로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法司委 睦堯相의원(民韓)은『저질탄사건수사에서 부당이득이 4백억원으로 알려졌는데 동자부장관은 16억원으로 밝혔으니 이엄청난 차액과 부당이득률의 산출근거가 무엇이며 영세민들에게 부당이득률을 반환할 용의가 없는가』고 추궁했고 金在鎬(民正)、申諧均의원(국민)은 ▲법률구조사업의 현황과 비행청소년예방책 ▲更生보호사업의 국민운동化방안 ▲특별순화교육대상자의 유형별 범죄자수와 교육후의 문제점등에 관해 물었다。

交通委 李禧秀교통차관은『지난9월 韓·英항공회담에서 영국측이 홍콩以遠權행사를 주장치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히고 택시운전사 월급제에 대해『82년부터 부분적으로 실시, 80년대상반기중 정착되도록하겠다』고 말했다。

李차관은『濟州道를 국제수준의 관광지로 개발하기위해 구체적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年內에 추진계획이 成案될것』이라고 말하고『84년 完工예정이던 地下鐵3·4호선은 경비때문에 1년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教育稅관련 公聽會 民韓반대 流産될듯

民正黨은 국회財務委주관으로 공청회를열어 教育稅에대한 각계의견을들을 방침이었으나 民韓黨이 반대하고있어 공청회개최는 어려울것같다。

民正黨은 오는25일로끝나는 常任委의 정책질의직후에 공청회를 열자고 제의했으나 民韓黨은 교육세 신설문제만으로는 공청회를 열수없다고 반대하면서 공청회를할경우 소득세법 租稅減免규제법 특별소비세법등 최소한 3개를대상으로 추가시켜야한다는 주장을내세워 異見조정에 실패한것으로 알려졌다。

「監護처리」1천4백65명

外國投資者 비자발급 公館長이

정부는 외국인투자와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해 투자외국인등에 대한 사증(비자)발급 권한을 해외공관장에게 위임, 신속화하고 무사증 관광객에 대한 기항지(寄港地)상륙허가제도도 확대, 상륙허가기간을 종전 5일에서 15일로 연장(지난 8월부터 실시)했다。

법무부는 22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대적 사회보호대책의 일환으로 보호관찰제도의 전면도입을 위해 전담 연구반을 구성, 연구하고있다고 말했다。

이자료에 따르면 사회안전법에 의한 감호처리현황은 지난8월말 현재 청구에의한 1천3백88명(보호감호1천3백26명·치료감호62명)과 청구에 의하지않은 77명등 모두 1천4백65명이 감호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년들어 범죄 발생현황을 보면 8월말현재 사기범죄는 5만2천3백53건으로 전체범죄발생건수 49만2천4백26건의 10·6%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년도같은기간의 3만2천3백49건에 비해 무려 61·8%나 크게 증가했다。

제2跳躍위해 國際收支개선을

全대통령 指示

原電건설 工期단축토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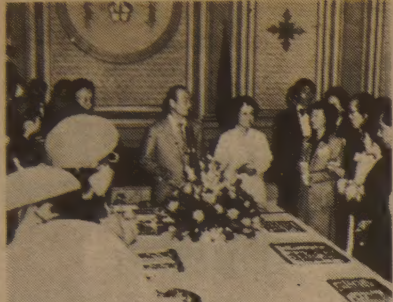
全斗煥 대통령은 22일『원자력발전소건설공사뿐만아니라 정부의 각종공사는 工期를 단축시킬수록 경제적이익이 큰만큼 정부와 기업인은 서로협조해 工期를 단축시키는데 노력하되 工期단축에 따른 不實공사가 되지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하고『원자력발전소를 계속 운영하는데 있어 가장필요한것은 高級人力을 확보하는것이므로 관계회사와 협조해 고급인력양성계획을 철저히 수립, 실시해야 할것』이라고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상오 회의에서 9월중 經濟動向보고를 받은뒤 이같이 지시하고『원자력발전소는 敵의 좋은 공격목표가 되는만큼 敵공격에 대비한 자체경비에 대해 충분하고 철저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또『경제정책뿐아니라 정부의 모든 정책은 기본정책방향에 따라 종합적이고 일관성있게 추진돼야 국민들로부터 이해와 신뢰를 받을수 있다』고 지적하고『특히 내년은 제5차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이 시작되는 첫해로 對內外경제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도 정부각부처간의 긴밀한 협조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그동안 우리는 경제성장을 위해 부득이 많은外債를 지지않을수 없었다』고 지적하면서『국제收支악화를 예방하기위해 모든국민은 국내저축을 늘리는데 노력해야한다』고 말하고『은행의 예금종류가 너무 많으므로 누구나 쉽게 은행을 이용할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연구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또『제2의경제도약을 위해서는 물가안정과 국제收支개선이 가장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범국민적인 협조와 인내가 필요하고 모든국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分擔한다는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거듭강조하고『경제적 어려움에 공동대처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에게 경제에대한 교육과 이에대한 홍보를 더욱강화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



體典관련 敎職員등 全대통령이 茶菓會

全斗煥 대통령은 22일하오 청와대영빈관에서 영부인 李順子여사와 함께 林芝爵교장(서울永登浦국교)등 전국體典개회식행사에 참가했던 관계교직원및 학생대표 77명을 위해 다과를 베풀고 노고를 치하했다。〈사진〉

"내년物價 10~14% 억제"

經濟動向보고 經常收支赤字 45억內로

換率 伸縮운용、住宅수요 喚起대책필요

全斗煥 대통령은 22일상오 경제기획원에서 지난 9월중의경제동향과 내년도 경제정책과제에관해 보고를들었다。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은「82년경제정책의기본과제」란 특별보고를통해 최근의 달러貨強勢가 반영되지 못한換率을 實勢에맞춰인상, 유동화하고 住宅수요喚起를 위한 특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것이라고 건의했다。

金滿堤KDI원장은 내년에도 연20%이상의 여전히높은 인플레기대心理팽배, 선진국경기회복지연과 국제高金利에따른 수출부진등 국제수지악화, 급속한 景氣회복 難望과 이에 따른 長期不況등 경제전반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전망, 물가상승률을 10~14%, 경상수지적자를 45억달러이내로 억제하고 7~8%의 성장률을 유지, 안정성장의 기반을 확보해나가기위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보고했다。

그는 국제고금리에따라 外債利子부담이 금년의 37억달러에서 내년에는 더욱 크게 늘어나고 해외경기회복지연에 따른 수출전망도 밝지못해 내년경상수지적자는 작년 53억달러, 금년55억달러에서 60억달러로 계속늘어 국제信認에 문제를 낳을우려가 있다고 지적, 최근의 달러貨강세를 반영하지못한 換率의 인상요인 약4%를 비롯, 換率운용을 신축적으로 유동화하고 달러強勢로 수출채산성이 악화된 EC지역수출에도 특별한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가도 경기가좋아지면 제값을 받겠다는 工産品 가격인상압력, 수출업계의 換率인상요구, 賃金등 인플레補償을 요구하는 국민각계각층의 압력등으로 20%내외의상승이 전망된다고밝히고 인플레악순환을 근절하기위해 내년에도 식료품가격, 공공요금, 賃金등의 과다한 인상요구는 自制되어야하며 재정적자축소와함께 총통화증가율을 22%선에서 유지되도록해야한다고 말했다。

景氣도 내년 경제성장률이 과거 回復期의 12%선에 이르지못하는 7~8%에 그쳐 뚜렷한 회복감도 기대되지않는다고 말하고 완만한 경기회복 과정에서 민간소비지출이나 설비투자는 내년들어다소 호전될것이나 수출과 주택건설은 계속 부진할것이라고 전망, 주택수요촉진을 위한 특별대책과 公金利의 인하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金KDI원장은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6·5%, 1인당국민소득(80년가격기준)은 작년 91만7천1백원에서 96만3천4백원으로 5%늘어날것으로 보이지만 好況말기인 79년의 98만7천5백원보다도 낮은수준에 머물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년중의 명목賃金은 18%상승할것으로 보여 인플레에따른 실질賃金감소는 작년의 4·7%보다 높은4·8%로 악화되며 失業率은 작년의 5·2%에서 5%(실업자73만2천명)로 소폭개선되고 소비자물가는 정부예상보다 낮은 17~18%(도매16~17%)에서 안정될것으로 전망되며 9월말현재 土地·주택가격도 작년대비 토지는 6·5%, 주택4·8%상승한 수준(79년수준)에서 안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새마을지도자 2명 全대통령 勳章수여

全斗煥 대통령은 22일月間경제동향보고회자리에서 새마을지도자 鄭相斗씨(慶北盈德郡寧海面)와 李瑢雙씨(忠南天原郡稷山단위농협조합장)에게 새마을훈장協同장을 주었으며 이어 보고회가 끝난뒤 참석자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가을비속에 열린 제22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서울의「송파산대놀이」가 관중들에게 선을 보이고있다。【仁川공설운동장에서 金龍逸기자찍음】

전국民俗경연대회

어제 仁川서개막 市道19팀참가

本社헬機서 慶祝꽃다발投下선물

【仁川=李忠雨기자】 제22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가 22일 상오10시 仁川직할시공설운동장에서 李光杓문공부장관, 金燦會仁川직할시장과 많은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화려한 막을 올렸다。

李光杓문공부장관은 치사를 통해『한낱 전통예술을겨루는 차원이아니라 향토문화속에 깃든 민족의 자주정신과 창조정신의 정수를 찾아내 새역사 창조의 정신적 저력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회식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일보社 헬機에서 본사 張康在회장이 仁川시민에게 보내는 경축꽃다발이 낙하, 장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社会漫評

地平線

『세계경제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빠져있으며、앞으로 몇해안에 이늪에서 벗어날수 없을것』이라고 지난7월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다봤었다。24개의 선진공업국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경기회복전망을 좀더 뒷걸음쳐서 반년 늦춰잡고있다。작년12월엔 82년초에 선진공업국의 경기가 풀릴것이라고 했지만、지난7월 82년후반으로 늦췄다。

▼유럽공동체(EEC)각국은 지금 사상최고의 실업률로 고민하고있다。7월현재 평균8·1%로 영국에서는 전후최대의 인종폭동이 터지기도했다。OECD의 예측으로는 선진공업국의 성장률이 올해엔 1%를 약간 웃돌것이라고 한다。내년 상반기에는 서서히올라 年率로쳐서 2%、이어서 하반기에 3%가될 전망이다。경기회복이 늦춰진 이유는 미국의 고금리때문이다。

▼그중에서도「기름이 없는 개발도상국들」은 특히 어려운 형편에 있다고 IMF는 경고하고있다。국제금융시장의 이자가 뛰어오른데다 기름값이 더 오르고、선진국들의 성장이 느리게되면 파국이 올지도 모른다는 것이다。80년까지만해도 소위「중진국」들은 70년대의 이자가 낮은 공공차관이 있어서 그런대로 견딜만했었다고 IMF는 지적하고있다。

▼IMF는 개발도상국의 빚이 계속해서 엄청나게 늘어나 올해엔 1조억달러(7백조원)선을 돌파할것으로 보고있다。이것은 민간상업은행만을 계산한 액수다。작년말의 액수가 8천1백억달러였으니까 올해에 23%가 늘것이라는 계산이다。예를 들자면 작년말현재 브라질이 4백33억달러、베네수엘라가 2백13억、폴란드 1백53억、한국 1백40억달러다。

▼어처구니없는 얘기같지만 엄청나게 많은 기름을 가진 멕시코가 브라질과 맞먹는 4백10억달러의 은행빚을 짊어지고있다。그래서 세계은행은『개발도상국들이 80년대에 성장할수 있느냐 없느냐하는것은 기름값이나 수출상품값이 아니라 외부환경에 적응하는 기술에 달려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멕시코의 칸쿤에서는 22일 가난한 나라와 부자나라 지도자 22명이 얼굴을 맞댔다。선진국들은 보호무역의 장벽을 낮추고、경제원조를 늘리라는 압력을 받고있다。이에대해 미국의 레이건행정부는「원조보다 통상」이라는 태도를 굽히지않고있다。기름값과 불경기의 틈바구니에서 빚이 커가고있는 우리로서도 무관심할수 없는 일이다。하지만 문제는「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에 달려있다」는 세계은행의 말처럼 우리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걸 잊어선 안될것이다。

한국일보 533·2361

한국일보
우리의 理想은 公正한 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531-0277
한국관
연중무휴
AM11시 새벽1시
특별메뉴
● 식욕을 돋구는
된장찌개정식
순두부찌개정식
생선찌개정식
민어매운탕
즉석불고기정식
즉석곱창전골정식
곰탕, 꼬리곰탕
입안족 냉면
비빔냉면
회냉면
중국요리일절
결혼피로연, 환갑동창회
각종회의, 단체손님환영
※ 회의실 60석
성심 성의껏 섬기오니 봉사하겠아오니 왕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나옥녀 올림

佛光寺 법회안내
장 소 : 불 광 사
지도법사 : 석 광 옥 스님
법회안내 : 일요일 오전11시~12시(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좌선 : 참선지도)
주 소 : 288 How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 화 : 223-9152

모든 악기를 취급합니다
부속품 · 악기수리 · 대여
Remenyi
house of music
1890년에 설립

토론토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피아노 (새것과 Reconditioned)
바이올린과 일체의 현악기 Specialist
210 Bloor St.W. Tor. Tel : 961-3111

한국의 친척들중 카나다에 오시길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들을 당신과 당신가족을 방문케 해서 모셔오십시오. 동시에 우리와 같이 영어를 공부하게 하십시요.
1976년 이후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공부했읍니다.
보다 소식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로 전화하십시요.
Canadian Language Institute
728 Bay St. Toronto, Ontario
M9G 1N5 ☎ : 598-0451

陳氏眼鏡公司
MARWITZ Zeiss-Gruppe West Germany
ZEISS ● 고급안경취급 West Germany
RODENSTOCK
● 콘택렌즈를 맞추시는 분께는 선글라스를 선물 합니다.
BAY OPTICAL CO. LTD.
LUCLIFF PLACE
700 BAY ST.(at Gerrard)
TORONTO, ONT.
TEL : 595-1665
FASHION OPTICAL
525 DUNDAS ST.
(at Spadina Av.)
TORONTO, ONT.
TEL : 363-0684
영업시간 ●
● 월~토 9 : 30AM~6 : 00PM ● 월~토 11AM~7PM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 : 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 거의 다가서임)
★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전화 : (416) 222-9480

一品香飯店
(짜장면등…)중국북방식
한국인 입에 알맞는 요리
특히 북경오리요리전문
1주일 내내영업(11A.M.~11P.M.)
393 DUNDAS ST. W.
☎ : 363-9527
CHINA ROYAL RESTAURANT

감사의 말씀

고인되신 어머님을 위해 지난19일부터 사흘동안 불순한 일기에도 불구하고 물심양면으로 참석, 지도해주신 여러분께 우선 지면을 통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마다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 우
심 용 웅 배

美 核미사일 西歐배치 관철

나토核기획그룹회의 閉幕聲明

◇레이건—趙紫陽회담 南北정상회담참석차 멕시코의 칸쿤에 가있는 레이건 美 대통령과 中共수상 趙紫陽이 21일 2명의 통역을 사이에 두고 오간회담을 하고있다。【칸쿤21日AP電送=聯合】

5개國에 퍼싱II등 5백72臺

對蘇 軍縮협상도 계속

【글렌이글스(스코틀랜드)21日UPI=聯合】美國을 비롯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國防相들은 21일 西歐각지역에 파급되고 있는 反核분위기에도 불구하고 西歐5개국에 美製新型미사일을 배치하기로 한 나토결정을 관철하기로 결의하고 2일간의 나토核기획그룹회의를 마쳤다。

프랑스와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나토13개국 國防相들은 이날 나토핵기획그룹회의 폐막성명을 통해 그들이 오는 1983년부터 西獨 英國 벨기에 이탈리아및 네덜란드등 西歐5개국에 1백8基의 퍼싱II미사일과 4백64基의 크루즈·미사일을 배치하기로 한 79년의 나토결정을 만장일치로 재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성명은 또한 나토國防相들이 이들 新型 중거리미사일의 배치결정을 재확인하는 한편 對蘇 핵군축협상을 계속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나토회원국들은 오는 11월30일 제네바에서 개막될 美·蘇군축협상에 앞서 미국이 모색해온 맹방간의결속을 과시했는데 고위 美관리들은 신형미사일배치로 유럽의 핵전력을 향상하기위한 노력이 제네바 회의결과에크게 좌우될것이라고 말했다。

"核戰 유럽局限아니다" 레이건解明

【워싱턴21日UPI·AP=聯合】레이건美 대통령은 21일 유럽지역에서의 제한핵전쟁 발발가능성을 시사한 최근 그의 발언이 우방들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것과 관련、자신은 핵전쟁이 유럽에 국한될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하고 미국은 유럽에 대한 모든 군사적 위협을 미국자체에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있다고 강조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날 칸쿤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 참석차 멕시코로가는 전용기상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미국이 유럽의 희생하에 核전쟁을 고려하고있다는 브레즈네프소련공산당서기장의주장을 『노골적인 사기』라고 매도하고 핵전쟁이 발발할경우 전인류가 멸망할것이기때문에 미국은 어떠한 핵무기의 사용에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墺「新마샬플랜」제의

선진·産油國출연 開途國원조

南北頂上회담 開幕

【칸쿤(멕시코)22日AP=聯合】22일 멕시코의 칸쿤에서 개막된 南北정상회담에서 프랑스와 캐나다가 美國의對開途國강경입장에 반대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는 한걸음 더 나아가 新마셜·플랜을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는 또 南北간의 현안외에 주요지도자들이 개별회담을 갖고 쌍무문제를토의할 것으로전해짐으로써 경제문제외에 정치문제도 상당히 깊숙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트뤼도·포르티요 共同議長에 선출

【칸쿤(멕시코)22日AP=聯合】피에르·트뤼도 캐나다수상이 21일 호세·포르티요 멕시코 대통령과 함께 칸쿤 남北정상회담의 공동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번 남북회담에 참석하는 22개국 지도자들은 회담개막 전날인 21일밤 카리브해가 내려다보이는 칸쿤의 호텔에서 만찬을 나누는 가운데 와병중인브루노·크라이스키오스트리아수상대신에 트뤼도 수상을 만장일치로 공동의장에 선출했다。

캄內 모든外軍철수 유엔總會 결의안

【유엔본부21日外電=聯合】유엔총회는 21일 캄보디아문제의 공정하고 지속적인 해결을위해 ▲캄보디아에서 모든 외국군 철수 ▲캄보디아독립회복과 영토보존 ▲캄보디아국민에게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권리 부여 ▲캄보디아에 대한 내정간섭금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지난 79、80년에 이어 연3번째로 채택된 것인데 지지율이 79년의 찬성91 반대21 기권29、80년의 찬성97 반대23 기권22에비해 찬성1백 반대25 기권19로 늘어났다。

유엔총회는 또 휴전협상과 유엔감시하의 외국군 철수및 자유선거실시를 촉구하는지난7월의 캄보디아문제에 관한 유엔회의보고서를 승인하고 캄보디아문제회의가 캄보디아문제의 포괄적인 정치적 해결을 위해 7개국위원회를 설치한것을 인준했다。

폴란드 騷擾사태擴散

15만勞動者파업·千여군중 反政시위

【바르샤바21日UPI·外電=聯合】20일밤 발생한 폴란드자유노조지지자들과 경찰간의 충돌사건으로 폴란드남부의 탄광도시 카토비체가 초긴장상태에 싸여있는 가운데 폴란드서부 지엘라 고라省에서는 21일 약15만명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였으며 폴란드서남부 브로클라브에서는 약1천5백명의 군중이 反정부가두시위를 벌였다。

反蘇지하신문과 자유노조간행물을 판매하던 3명의 노조행동대원들이 당국에 체포된데 항의、가두시위를 벌이다 자유노조결성이래 경찰과 최악의 충돌사건을 빚었던 카토비체노동자들은 식료품공급사정의 호전과 새로운 對정부협상에서의 돌파구마련 가능성、그리고 자유노조간행물의 판매허용에도 불구、항의파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엘라고라省에 있는 약7백개 농장및 공장의 노동자 15만여명은 이날 국영농장에 있는 자유노조상점의 종업원을 복직시킬것과 그를 해고시킨데 책임이있는 상점지배인및 농장고위관리들을 해고하도록 요구하면서 1시간동안의 경고파업을벌인후 22일부터 지엘라고라省전지역에서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위협했다。

메아리

女性 회전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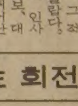
화이트칼러의 소박한 소망중의 하나가 회전의자에의 기대라고 하겠다。그 자리는 사회적 지위의 상징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경제개발이 시작되면서 「출세하여 빌딩빌딩을 도는 회전의자」에 앉고 싶다는 대중가요도 한때 유행했다。

최근 미국 민간기업엔 「회전의자 여성」이 날로 늘고 있다。 경영진의 25%가량이 여성들로짜여졌다고 한다。 경영대학원에 들어가 석사과정을 밟은 여성도 지난 10년새 7·4배나 증가했나。올해 경영대학원 졸업생 가운데 상당수를 차지했다니 그저 극성이 놀랍다。 이들은 인사관리、홍보、대외교섭같은 업무에서 발휘하는 능력이 뛰어난다。그래서 남자들도 부러워 할 연봉1억원 (미화15만달러) 이 넘는 고급월급쟁이도 있다。

女必從夫、절대복종의 동양적 여성관이 크게 퇴색한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 다소 역설적인 이야기인지 모르나 일본의 여권신장은 가정법원에 비친 「離婚相」에서 드러난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여성쪽이 압도적이다。위자료는 대부분 남편이 내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늘어가고 있다。 이 현상은 물론 여성의 경제적 자립능력이 높아진 탓이라고 풀이된다。

여성의 맹렬한 대시는 세계적으로권위있는 보수적 기관의 「禁城」마저 자꾸 허물어 내린다。 얼마전 서울올림픽을 결정한 IOC총회는 처음으로 여자위원을 맞아 들였다。 프랑스의 아카데미에도 발길이 들어섰다。

새로 임명된 우리 학·예술원엔 여성회원이12명으로 늘었다。 하나 경제활동인구의 42%인 우리 여성들은 아직 일반직장에서 평등한 대접을 못받는다고 불평이 많은 것같다。



시중은행에 첫여성지점장이 나와 잔잔한 화제가 되었다。 지난 9월말 현재 각은행의 행원은6만7천여명으로 이중 여행원이 2만명을 넘는다。전체의 3분의1에 가까운 여행원들의눈엔 은행회전의자가 남자들의 「保守의 城」으로 비칠 것이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개선될과 함께 생각해볼일은 여권운동의 새로운 시각이라고 하겠다。 「서로 대립했던 남자와 여자는 이제 다시 협력해야 한다」는 미국여권운동가 프리단의 주장을 경청해야 할것이다。

"유럽核戰"失言에 구멍난 레이건外交

"美의 방패막이냐"…反核불길에 휘발유 끼얹은셈

【워싱턴22日=曺淳煥특파원】유럽에 제한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레이건의 발언은 유럽에 해일만큼이나 큰 충격을 주었다고 미국 신문들은 21일 보도했다。

서독 중도 좌파노선의 프랑크풀터룬트샤우紙는 『유럽에 핵전쟁』이란 선동적인표제아래 『미국은 모면될수 있다고 레이건고려』라는 부제를 달았다。

서독 울름시의 쉬즈베스트프레세紙는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불난집에 휘발유 끼얹어』라는 과격한 제목마저 달았다고한다。

레이건은 별안간 궁지에몰린 자신의 진의가 잘못전달됐다는 해명을 계속했다。

그러나 로스앤젤레스·타임즈지는 레이건 제한핵전쟁가능성론에대한 답변은 다소 장황한것이라고 논평했다。

유럽신문들이 흥분되기 쉬운 핵문제에 대해서 얼마간 선정적으로 보도한것은 사실일것이나 와인버거장관의 말대로 문맥에서 벗어난 보도라고 규정지을수는 어려울것같다。 차분한 해설기사로 권위를 자랑하는 미국의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지도 21일 1면머리기사로『제한핵전쟁—왜 레이건은 유럽을 불안케했나』라는2줄제목을 크게뽑고 『대통령의 발언、몇몇 유럽지도자들을 당황케하다』는 부제를 달았다。

모니터지의 기사는 격앙되어있다。 『유럽사람들의 최악의 염려를 레이건이 분명히 확인해주어 그들을 당황케했다。 이것을 좀 원색대로 표현하면 소련의 핵공격으로 벗어나는데 도움이된다면 미국은 유럽사람들을 핵방패막이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된다』고 모니터는 기사머릿부분에 쓰고 있다。

유럽사람들이 핵방패막이가될때 아시아사람들의 경우가 어떻게 될것인지에 생각이 미치게된다。 레이건은 남북정상회담참석을 위해 멕시코로가는 미공군제1호기상에서 미국은 핵전이든、비핵전이든 유럽을 방위한다는 성명을 내었으나 이미 엎지러진불이다。

프랑스의 故 드골대통령이 핵쪽재개발에 나선것은 독자외교와도 관계가있으나 소련의 유럽핵공격에 미국이 본토의 핵공격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소련에 핵으로 맞설수있을것인가의 의문에도 바탕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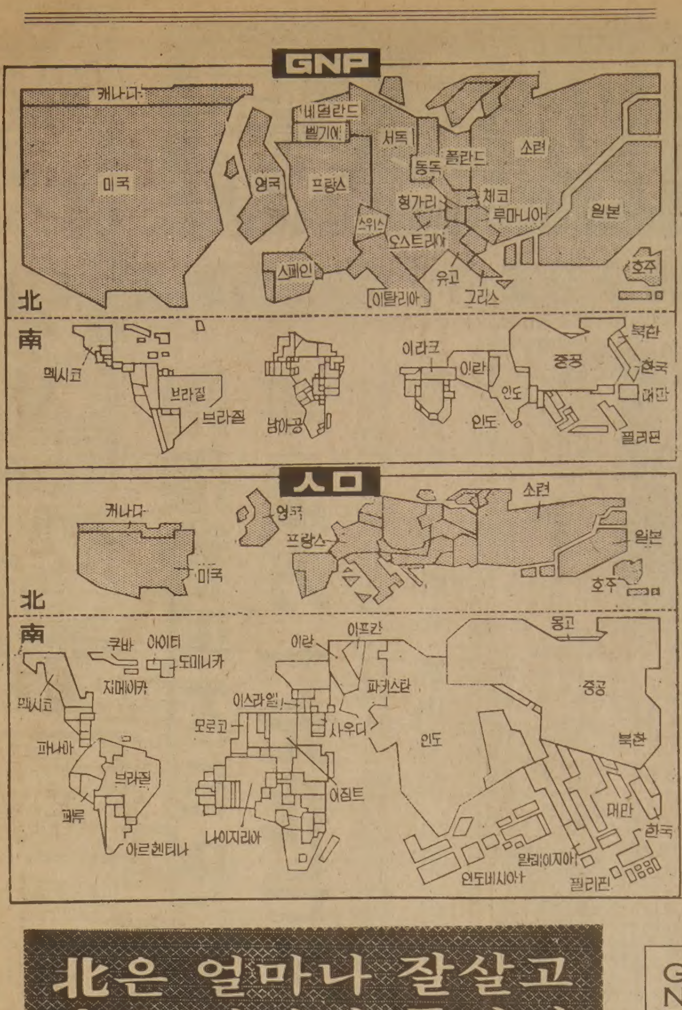
레이건은 핵문제에대해서는 작년 선거전때도『핵확산방지문제는 우리가 관여할문제가 아니다』고 실언했다。

레이건은 외교정책분야서는 미세한 문제는 알려고하지않고 큰 방향만잡아나간다는 평도있었으나 이번 유럽제한핵전쟁가능성론은 미국외교의 전통적근간인 對나토외교에대한 큰 방향문제여서 실점으로 평가될것같다。

이발언의 시기도 좋지않아 서독 본시에서 핵배치반대、군비증강반대를 내세운 25만명의 데모가 있은지 약1주일후에 레이건이 실언을 한 셈이된다。

유럽의 반핵여론이 고무될것이며、서독 슈미트수상의 위치가 난처해진다。또 사다트사후 미국중동외교가 한풀꺾여 소련이 PLO를 공식승인하는등 외교공세로 나오고 있는 터에 나온 레이건의 실언은 레이건외교위신에 또 하나의 구멍을 뚫었다。

헤이그미국무장관이 레이건팀의 일원이 되지않아 그 위치가 불확실하다는 평을받고 있으나 레이건의 실점으로 헤이그외교가 팀웍면에서는 불확실하더라도 그 좌표를 튼튼히 굳혀 나갈것같다。



北은 얼마나 잘살고 南은 얼마나 못사나

GNP·人口地圖로본實相

開途國 전체 美·加총액불과

東南亞는 日의 절반도 안돼

한국은 北韓의 4倍로 그려

貧國과 富國으로 두동강난 세계。南은 과연 얼마나 가난하고 北은 얼마나 부자인가。

國富와人口를 기준으로 그려본 세계지도는 北에 편재된 富와 南에 편재된 인구를 너무나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南에 속하는 1백40개국에 달하는 개발도상국의 GNP(국민총생산)환산면적이 겨우 미국과 캐나다를 합친 것박에 되질 않는다。

반면 선진국의 인구를 모두 합쳐야 중공과 맞먹는다。

특히 놀라운 것은 동남아시아각국전체·GNP 환산면적이 일본의 반에도 못미치고있다는 사실이다。富의南北지도가운데 다시 북한과 한국간의 격차는 크다。

국토가 한국보다 조금 큰 북한의 GNP환산면적은 한국의 약4분의1정도박에 안된다。

지난30년간 부의 극심한 편재를 좁혀보려는 南北대화는 계속되어 왔지만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을뿐이다。

선진국들의 1인당 GNP는 6천4백68달러인데 비해 개도국은 겨우 5백97달러로 11배나 가난하다。

개도국35개국의 11억인구(세계인구의 4분의1)는 연간개인소득이 3백달러미만이다。이중 8억인구는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

개도국의 인구는 34억으로 선진국11억의 3배이다。인구는 많고 먹을것은 없다。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개도국사람들은 평균56세에 죽고 선진국사람들은 72세로16세나 더산다。

급증하는 유가에 허덕이는 개도국은 선진국에 4천3백90억달러라는 엄청난 빚을걸머지고 있다。

이같은 南北간 富의편재현상문제를 놓고 22일 멕시코의칸쿤에서 레이건미 대통령을 비롯한 22개국의 선·후진국지도자들이 모여 협의를하고 있다。【崔海雲기자】

女優 메르쿠리入閣 파판드루 組閣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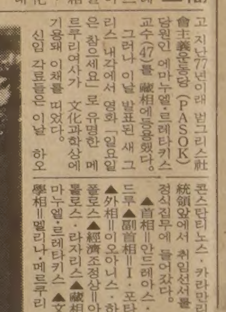
【아테네21日AP=聯合】안드레아스·파판드루 신임 그리스首相은 21일상오 前職장교이자 기사인 이오아니스·하랄람풀로스議員(62)을 外相에、그리고 여배우 멜리나·메르쿠리여사(55)를 文化科學相에 각각 기용한 새내각명단을 발표했다。

파판드루首相은 또한 經濟조정상에는 아포스톨로스·라자리스교수(60)를 임명하고 지난77년이래 범그리스社會主義운동당(PASOK) 당원인 에마누엘·르레타키스교수(47)를 藏相에등용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새 그리스 내각에서 영화「일요일은 참으세요」로 유명한 메르쿠리여사가 文化과학상에 기용돼 이채를 띠었다。

신임 각료들은 이날 하오 콘스탄티노스·카라만리스大統領앞에서 취임선서를 한후 정식집무에 들어갔다。

▲首相=안드레아스·파판드루▲副首相=I·포타키스▲外相=이오아니스·하랄람풀로스▲經濟조정상=아포스톨로스·라자리스▲藏相=에마누엘·르레타키스 ▲文化科學相=멜리나·메르쿠리



◇문화과학상으로 임명된 그리스의 영화배우출신정치가 멜리나·메르쿠리 여사가 취임선서를 마친후 다른 각료들과함께 콘스탄티노스·카라만리스 대통령(左)과 환담하고있다。【아테네21日AP電送=聯合】

국제테러 支援중단 對리비아壓力 촉구

【워싱턴21日外電=聯合】미상원은 21일 리비아로부터의 석유수입을 전면금지시키자는 수정안을 근소한 표차로 부결시키는대신 레이건 대통령으로 하여금 앞으로 1백80일이내에 리비아의 국제테러 지원행위를 중단시킬수 있는 정치·경제적 압력수단을 마련、의회에 제출토록 결의했다。

새수상 아크바르 이란의회 임명부결

【테헤란22日外電=聯合】이란회교의회는 22일 알리·하메네이 대통령에 의해 제출된 알리·아크바르·벨라야티(36)의 차기 수상 임명동의안을 80의 대74로 부결 시켰다。

海外토픽

大腸菌으로 血栓症치료제

日서 遺傳子조작으로開發

【東京21日=宋孝彬특파원】일본의 야쿠르트회사 연구소는 혈전(血栓)용해작용을 갖는 물질을 대장균을이용、유전자조작의 숫법에의해 세계최초로 만들어냈다고 21일 요미우리(讀賣)신문이 보도했다。

혈전용해제는 노경색등의 치료제로 지금까지는 사람의 소변에서 추출한 우도키나제를 사용해 만들어왔으나 소변의 대량수집이 문제가되는 등 어려운점이 많아 값이 비쌌다。

야쿠르트연구소가 만들어낸 물질은 황색포도구균이라고 불리는 병원세균이 자연생태에서 만들어내는것인데 이병원세균의 유전인자를 대장균에 이전시켜 대량으로만 들게됐다。

이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혈전용해제는 종전의것보다 부작용의 염려가 적으며 대량으로 생산할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혈전용해제는 일본국내에서만도 시장규모 6백50억엔(한화 1천9백50억원)의 대형 의약품이다。야쿠르트회사는 오는11월 학회발표와 동시 동물을 사용한 독성실험을 하기로했다。

露宿방랑객 돈벼락

★얼굴에 8백40만원쏟아져

이집트의 한방랑객이 20일밤 한 민가의 뜰안에서 노숙을하던중 갑자기 얼굴위로 마구 쏟아지는 돈벼락에 깜짝놀라 깨어나 1만이집트·파운드(약8백40만원)나되는 거금을주워 큰 횡재를하는듯했다。

그러나 이같은 횡재를 시기한 주민들이 경찰에신고、진상조사결과 이돈은 그가 노숙을하던 집의 창문에서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는것。

그런데 이돈은 그집남편이 부인몰래 오랫동안 한푼두푼 모아 솜이불속에 감춰두었던 것인데 마침 그날밤 부인이 이이불을 창가에서 털다가 모두 떨어져버렸던것으로 부인은 돈이 떨어진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것。【카이로=UPI聯合】

내년 韓美修交百돌 57억投入 각종事業

정부는 韓美修交 1백주년이 되는 내년에 「韓美友好의 해」를 선포、韓美양국의 우호를 증대시키는 각종행사와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외무부가 22일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주요사업으로는 ▲修交1백주년 기념 문화영화및 기념畵報제작 ▲기념국제학술대회 ▲국악예술단및 민속예술단의美洲순회공연 ▲修交1백년史편찬등이며 민간사업으로는 韓美양국에 紀念碑를 세우고 韓美민간외교 有功者들을 초청하는것등이 포함돼있다。

봉 학 농 장

안녕하세요.
김장철을 맞이하여 시내 전역에 직접 배달합니다.
(3 BOX이상주문)

※배추, 무, 파, 갓,
다꾸왕(왜무), 총각무등

☎ : 1-775-6256
☎ 252-1570
(아침9시이전, 저녁7시이후)

아직도 작년값으로 팝니다

밍크
털오바를
원하십니까?

Paul Magder FURS
◆밍크털 오바◆

새 진열장을 갖추고 고객여러분을 모시고 있읍니다.
털코트, 자켓, 모자, 스톨, 털목도리등
BIG SAVINGS NOW!
신 품 : $99이상 · 중고품 : $10이상

영업시간
9 : 30~6 : 00 월, 화, 수, 토
9 : 30~9 : 00 목, 금

202 SPADINA AVE.
☎ : 363-6077 MRS. PARK

海記飯店
HOI KEE REST.

— 싱싱하고 맛있는 —

달팽이 요리, 게 요리,
가재 요리, 조개 요리

한국인의 입맛에 꼭 맞는 진미 중국요리
가게가 끝나신후 꼭 들려 주세요
새벽6시까지 영업합니다

영 업 일 : 월요일~일요일
영업시간 : 오전11시반~새벽6시까지

※ 이 광고를 갖고오십시오.
10% 할인

133 DUNDAS ST. W
TEL. 977-3441

海 記 飯 店

Grant Brown

차가 필요하십니까?
이한구를 찾아주십시오.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82년형 J-2000

잘 정비된 백여대의
Used Car들이 있읍니다.

1575 WESTON RD.
WESTON, ONT
(B) 247-7161
(R) 977-2731

太平洋 건너 싹튼 友情

光州市-美 샌앤토니오市 結緣

지난 8일 假調印·내년초 調印式

市民상호방문·體典등 계획

【22日=휴스턴支社】 한국의 光州市와 미국텍사스州의 샌앤토니오市가 자매도시가 됐다. 光州市로서는 외국도시와 맺은 첫번째 결연이지만 한국 전체로는 47번째 맺는 경사다. 광활한 미국남부 텍사스 가운데에 위치한 샌앤토니오市는 존웨인 주연의 「아라모 전투」、영화 「쾌걸조로」의 무대로 명성을 얻고있는 도시다. 이 전형적인 개척시대의 도시가 역사적, 지리적 배경이 엇비슷한 한국의 光州市와 친구가 된것. 「서양」과 「동양」간에 열린 교우지만 오랫동안 사귀어오던 친구처럼 「공통점」이 많은 사이기도하다. 자매결연에 관계했던 인사들은 두도시가 맺어지게 됨으로써 앞으로 행정, 교육, 문화, 관광등 각방면에 걸쳐 알찬 상호교류가 기대된다고 입을 모은다.

샌앤토니오市 本社에 알선의뢰, 光州市서 호응

金光州市長 내년 1月初 渡美, "한국일보에 감사"

◇가조인식가진 推進委 샌앤토니오 市廳 회의실에서 거행된 자매결연 가조인식 직후 샌앤토니오市측 관계자(좌에서 2번째로널드·딕슨명예영사 4번째 헨리·시스네로스시장)가 지켜보는가운데 교민회대표 이천용씨(좌에서 3번째)가 조인장을 들어보이고있다。

지난 7월중순께 미국연방정부의 이민국장 특별보좌관인 아놀드·프로레스씨가 한국을 왔다간후 헨리·시스네로스샌앤토니오 시장을 맞나 한국의 어느도시와 자매결연을 맺도록 권유한데서 양도시의 결연은 싹텄다. 헨리·시스네로스시장은 이 제의를 기꺼히 받아들여 샌앤토니오市의원과 샌앤토니오 한국교민회 간부들로 자매결연추진위원회를 구성, 자매대상도시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추진위원회의 주요 멤버는 아놀드·플로레스 샌앤토니오市의회의원(추진위원장)、조알·더레트2세(집행위원장)、박원배 샌앤토니오 한인회 회장, 로널드·딕슨 명예영사, 한국교민 이천용씨등 20여명.

추진위원 이천용씨등 교민대표들은 샌앤토니오市의 지리적 여건·역사성등을 감안해 그와 비슷한 한국의 도시로 光州市를 선정, 光州의 지리와 역사등을 소개, 다른 위원들을 설득시켰다.

◇샌앤토니오市 중심가 光州市의 자매도시가된 미국텍사스州의 샌앤토니오市의 도심지전경。

아놀드·플로레스추진위원장은 자신과 친분이있는 張在九한국일보사장에게 光州市와 자매결연을 알선해줄것을 당부하는 서신과함께 이천용씨등 추진위원을 한국에 보냈다.

裵成煥한국일보업무이사의 안내로 金良培시장에게 샌앤토니오市의 제의를 전했고 金시장이 이를 받아들였다. 지난 8월7일의 일이다.

光州市의 쾌락을 받은 샌앤토니오市 추진위원들은 본국에 돌아가 자신들이 할 일을 차질없이 추진했고 光州市도 지난 2일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내 양도시가 모든 준비를 끝냈다.

그후 샌앤토니오 시장은 金良培光州시장을 오는 11월초 샌앤토니오에 초청했다. 정식으로 자매결연식을 올릴예정이었다. 그러나 金시장의 사정때문에 출국이 늦어지게 되겠다는 통보를 받자 지난 8일 자매결연 가조인식을 갖고 光州市와 샌앤토니오市가 자매도시가 됐음을 공식발표하기에 이른것.

샌앤토니오市廳 회의실에서 거행된 가조인식에는 추진위원과 시민들이 참석했고 가조인장은 박원배 한인회회장이 받아, 光州市로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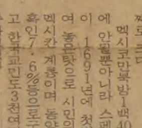
이자리에서 헨리·시스네로스시장은 「이 자매결연은 양도시의 긴밀한 유대관계와 함께 샌앤토니오시로서는 매우 뜻깊은일」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자주인적교류 특히 양도시의 문물교역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金良培光州시장은 『11월초에 샌앤토니오市에 가서 정식자매결연을 맺을 계획이었으나 업무상바빠 1월초로 계획을 연기했다』고 말하면서 『결연을위해 애써준 추진위원과 한국일보사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한편 光州市는 내년초 金良培시장등 관계자가 샌앤토니오市를 방문, 정식으로 자매결연식을 거행하고 2월께는 샌앤토니오시장등 관계인사를 光州市에 초청하기로 계획을 세워놓고있다.

또 光州市는 이 자매결연을 계기로 시간부의 상호방문은 물론, 시민상호간의 방문을 통해 새로운 행정정보와 지식을 얻어 시정에 반영함은 물론 산업·문화·예술·학계의 상호교류와 상호친선체육대회개최등을 꾀하며 특산품의 교역도 추진할 계획이다.

텍사스州 중남부 人口 82만명 영화「조로」의 舞臺 僑民3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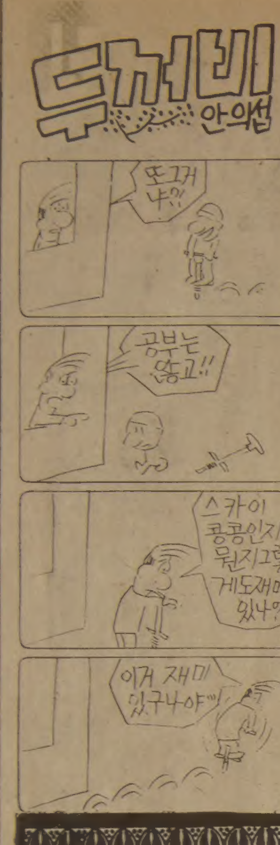


샌앤토니오市

샌앤토니오市는 미국텍사스州중 남부에위치한 인구82만5천명의 도시로 인구면에서 光州市(80만명)와 비슷하며 미국내에서는 11번째 큰도시인데 텍사스州내에서 휴스턴、댈러스에이어 3번째로 크다.

멕시코만북방1백40마일밖에 있을뿐아니라 스페인인들이 1691년에 첫발을 들여 놓은탓으로 시민의55%가 멕시칸 계통이며 동양계 9% 흑인7·6%등으로구성돼있고 한국교민도3천여명이 거주하고있다.

은행업이크게 발달해있고 고대풍과 현대가 잘조화를이루고있으며 텍사스州를 비롯한 미국남부의 군사주둔중심지이기도하다.



꽃도매상
437 CARLAW ST.
☎: 465-8167

刑事學校 신설·海外硏修 교육

수사력強化위한 治安本部 대책

人權보호 專擔기구 設置

河英雄형사의 예금증서 절취 사건을 계기로 치안본부는 22일 종합적인 수사력강화 방안을 마련, 전국시 도경찰국장회의에서 밝혔다. 강화방안에 따르면 수사력 보강을 위해 이미 법대출신 84명을 특채한데이어 82년에는 법정, 상경, 이공계 출신중 성적이 우수한 졸업생 1백50명도 특채, 수사간부요원으로 활용하기로 했으며 현수사요원(비간부)중 10년이상 경력자중에서 1백50명을 경사로 특별 임용, 강력사건을 전담토록했다。

컴퓨터·高性能 레이저指紋 검출기등 導入

변두리 支·派出所에 오토바이1대씩 배치

搜査경력10년이상 百50명 警査로특별任用

또간부후보생졸업자중성적이 10등이내인 경위급이상을 형사간부로 선발하고 수사요원에게는 호봉제를 적용, 승진기회를 넓혀주며 해외연수기회도주어 수사전문요원으로 양성키로 했다.

치안본부는 이 고급인력확보대책과함께 수사비도 1인당수사여비를 2만원으로, 활동비를 6만7천5백61원(월)으로 높여 지급할계획이다。

경찰은 또 형사요원의 교육과 수사간부의 재교육을 위해 형사학교를 설치, 운영키로했다。

이밖에 과학수사장비를 현대화시켜 보조기억장치 13대를 포함한 중앙처리장치 컴퓨터, 섬유류와 7년이 지난 종이류에서도 범인의 지문을 현출(顯出)시킬수있는 고성능레이저지문검출기도 도입키로했다。

또 서울의 위성도시인 城南、安養、富平、議政府、南楊州、高陽、金浦、廣州등 8개도시 경찰서에 수사요원을 1백93명늘려 도시주변 20개지파출소에 형사2명씩을 고정배치하고 1백25cc짜리 오토바이도 1대씩 지급키로했다。

치안본부는 이번사건으로 실추된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본부에 인권보호전담기구를설치,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란 오해나 인상을 주지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도강구했다。

列車脫線기도 3차례

20대拘束 鐵路위에 페인트통 올려놔

【議政府=聯】경기도 議政府경찰서는 22일 철로위에 페인트통을 얹어놓는등 열차사고를 기도한 鄭동찬씨(20·東豆川市 廣岩洞505)를 철도법위반및 기차교통방해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鄭씨는 지난 17일밤 9시50분께 東豆川市生淵洞 어수동역 남쪽6백m지점 철로위에 페인트통 10개를 올려놓아 서울城北역에서 경기도 漣川쪽으로 달리던 833호 열차를 6분간 정차케한것을 비롯, 현재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철로위에 돌、짚더미등을 얹어놓고 열차사고를 기도했다는것이다。

"공부싫다" "教會반대" "구설수 올라"

하룻밤새 自殺3건

21일 하오7시30분께 서울 恩平區鷹岩2洞569의3최정호씨(48·공무원) 집 건넌방에서 崔씨의 외동딸 貞姬양(19·명지여고3년)이 못걸이 못에 나일론 끈으로 목을매 숨져있는것을 가족들이 발견했다.

숨진貞姬양은 책상위에「살기싫다. 공부도 하기싫고 차라리 한줌의 재가 되고싶다」는등의 내용이 적힌 노트를 남겼다。

▲22일 새벽0시30분께 서울江東區 可樂洞 347의6 강우희씨(63)집 마당에서 姜씨의부인 李무갑씨(57)가 남편이 교회에 못나가게 한다는데 불만, 휘발유를 붓고 분신자살했다.

姜씨에 따르면 21일저녁 교회에가있는 李씨를 강제로집으로데려와 『왜 자꾸 교회에 나가느냐』고 말다툼을 한뒤 밤12시께 혼자 잠자리에들었는데 얼마후 마당에서 비명소리가들려 나가보니 부인이 석유통을 옆에놓고 석유를 온몸에 끼얹고 불에타고 있었다는것.

▲21일 하오7시55분께 서울永登浦區汝矣島洞1 한양아파트C동801호 복도에서 서울弘益전문대 공예과1년 李建熙양(20·서울冠岳區大方洞산40)이 20여m 아래 화단으로 떨어져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李양은이날 클라스메이트인 劉東雄군(21·서울城東區 新陽洞308의3)과 함께 수업을 마치고 하오6시30분께 汝矣島 KBS앞 공원에서 1시간가량 얘기를 나누다 7시30분께 어머니 심부름으로 이모집에가야한다며 이 아파트에 혼자올라갔다는것.

劉군은 또 李양의 생일날인 20일 하오7시께 서울鍾路區 YMCA옆 경양식집 「우정과 평화」에서 李양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이날상오 학교친구들이 『李양은 야하다』는 등 비난을해 李양이 『친구들이 너무한다』고 불만을털어 놨었다고 밝혔다。

냄새나는 映畫등장

畫面맞춰客席에꽃·향수뿜어

英파라마운트劇場서 시도중

海外연예話題

냄새나는 영화에대한 도전이 끊임없이 다각적으로 시도되고있다。 냄새나는 영화란 지금은 새로울것이 없겠으나 그같은 영화제작을위해 갖가지방법이 동원되어 화제가되고있는것이다。

냄새나는 영화가 처음 제안되었을때만해도수법상가능성이 희박하고 그럴필요도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영화를보면서 냄새도 함께맡도록하는 시도는 끊임없이계속되어왔다。

가장 손쉬운 방법이 객석에 향기를 뿜어주는 방식。브로드웨이의 「뮤직박스리뷰」를 흉내낸 것으로 화면에 비친 내용에 따라 그에 해당되는 냄새를 뿜어 주는 것。 예를 들어 화면의 배경이 봄철의 과수원이라면 관객석에오린지꽃을 풀어놓아 향기를맡을 수 있도록 하는시도。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관객들의 코 가까이에 장미 꽃을 바짝 갖다대야하는 어려움이 따르며 자칫 하면 관객들의 옷을 더럽히는 불편이 따른다。

다음으로 시도된것이 인공향수를 뿌리는 방법。「오도라마」라는 새로운 방식이긴하지만 더욱 어려움이 겹쳤다。

작은 향수병을 객석 중간중간에 마련하여 스크린에맞춰 각종향기를 뿜어대는방식인데 화면에 따라 맞추기가 어렵고 많은 종류의 향수 를 마련 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다。

다음에 나타난 것이 다른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필름자체에서 향기가 나도록하는 방식。 객석에 향수가 지날수있는 통로를 마련, 변화하는 화면의 내용에 맞는 향기를 흘러내도록 한다。

이러한 각종 방식은 영국의 파라마운트 시립트리올페극장에서 시도되고있는데 앞으로는 많은 극장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에도 영화를 보면서 화면에맞는 냄새도 맡게 될날이 멀지않은것 같다。

"脫稅 해결해주겠다"

公務員이 喝取

總務處직원 拘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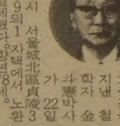
치안본부특수대는 21일 탈세사건을 둘러싸고 사건관계인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뜯어낸 총무처연금기획과 직원 朴充淳씨(33)를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朴씨에게 금품을 건네준 鄭仁生씨(40·이도산업외무사원·서울鍾路구仁寺동119의1)를 사기등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尹경호씨(38·서울앰배서더호텔 미림사진관주인)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朴씨는 지난11월19일 치안본부별관후문옆 「B」다방에서 구속된 鄭씨로부터 탈세사건으로 서울中部지방 국세청에 이첩돼있는 尹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처벌받지않게 관계기관에 청탁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백만원의 금품을 받는등 모두 4백8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것。

구속된 鄭씨는 달아난 尹씨가 지난10월말께 서울지검에 의해 탈세혐의로 연행돼 조사를 받은후 현재 서울中部국세청에 사건이 이첩돼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세금도 안물고 구속도 되지않게 해주겠다고 속여 尹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아 생활비·유흥비등으로 탕진하고 그중 4백80여만원만 朴씨에게 건네주었다는것。

前淑明女大총장金斗憲씨



淑明女大총장을 지낸 철학자 金斗憲박사가 22일 상오5시 서울城北區貞陵3洞689의1 자택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향년78세。

金박사는 일본東京大 문학부출신으로 梨花女專·延專등을 거쳐 52년 全北大총장、58년淑明女大총장을 지냈고 「가치론」「서양윤리학사」「윤리학개론」등 철학과 윤리학에 관한 많은 저서를 남겼다。 영결식은 24일상오10시 龍山區東子洞 성남교회。(연락처 ⑧5462)

트럭·택시衝突

2명死亡·4명다쳐

21일밤11시50분께 서울江南구狎鷗亭동 강변4로에서 서울8마8294호 타이탄트럭(운전사 金大奎·44)과 마주오던 서울4파6008호 포니택시(운전사 李寬浩·26)가 정면으로 충돌, 택시운전사 李씨와 승객1명등 2명이 그자리에서숨지고 택시승객등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埋沒鑛夫 2명

아직 救助못해

【太白=聯】지난20일밤 출수사고로 매몰된 太白市 咸太광업소 太白갱내에 갇혀있는 광부 崔德東씨(43·선산부)와 安喜壽씨(27·후산부)가 사고후 35시간이 지난 22일상오10시 현재까지 구출되지 못하고 있다。

22일 咸太광업소구조반(반장 金正洙소장)에 따르면 30명으로 구성된 구조반이 사고직후부터 죽탄제거작업을 벌이는등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사고현장에서 계속 지하수가 흘러나오고 죽탄및 버력이 쏟아져 내려 구조작업이 지연되고 있다는것。

나 우리나라의 남부와 서부해안및 제주지방이 간접영향권에들어 바람이세고 파도가 높겠다고 예보했다。

관상대는 그러나 24일하오부터는 중국대륙에서 확장하는 고기압권에 들게돼 예년기온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관상대는 또 22일정오를기해 동해중부해상과 울릉도、독도근해에 폭풍주의보를 내렸다。 예상최대 풍향풍속은 남서~북서풍 15~20m、파고는 3~5m。

한편 남해서부해상에 내려진 파랑주의보도 이날하오1시를기해 폭풍주의보로 대체됐다。

'88서울올림픽誠金

在日동포 모금운동

【東京22日=宋孝彬특파원】재일동포와 일본인은 88년도 서울올림픽을위해 써달라고 모은 돈을 주일대사관에 전달했으며 이를 계기로 재일동포들의모금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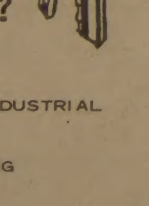
丁安哲(千葉縣거주)、徐彩源(廣島거주)、羅正相(廣島거주)등 재일 全南昇州郡別良국민학교동창 11명은 22일 金鍾國주일공보공사를방문, 서울올림픽 개최를위해 써달라고 1만달러를 기탁했다。

이에앞서 주일대사관근처에서 상점을 경영하는 일본인 시마다·마사아끼(嶋田正明·36)씨는 가까운 이웃인 한국서울에서 88년도에열릴 서울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러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성금3만엔을 주일대사관에 기탁했다。

許允道민단부단장은 재일동포 60만이 정성을모아 서울올림픽개최를 위해 모금운동이 자연발생적으로 벌어지고있다고 말했다。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 검사에서
한인 치과의사 일동

각종부동산의
매매및 상담이
필요하십니까?



- COMMERCIAL AND INDUSTRIAL PLAZA BUILDING
- APARTMENT BUILDING
- HOTEL AND MOTEL
- NEW STORE LEASE

오랜 경험과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로 수익성 높은
투자를 안내해 드립니다

김시성
(B)497-0600
(R)298-8558
D.F. McALLISTER
250 Consumers Ro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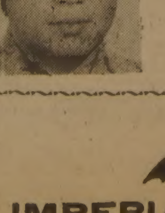
ZENITH VIDEO SENTINEL SYSTEM™

특별염가

취급품목
TV, RADIO
STEREO
ZENITH, SANSUI
AKAI, TOSHIBA

삼성사 668 BLOOR ST. W. ☎: 533-4125

* 생명교육보험
* RRSP
(세금공제 은퇴저축)
* 은퇴연금
* 사업보험
* 화재, 자동차보험



김흥량
(B) 482-0166
(R) 624-2103

IMPERIAL LIFE
covers you for life

한국、페루 꺾고 準決진출

4세트 고비넘겨…멕시코와 對決

世界 J女子排球

【멕시코시티=本社국제전화】 한국은 中共·蘇聯등을 연파하며 이번대회 최대돌풍을 일으켰던 페루를 3-1로 물리치고 준결승전에 진출했다. 22일(이하 한국시간) 멕시코시티서 벌어진 제2회 세계주니어여자배구선수권대회 준결승리그 B조 최종전서 한국은 제4세트서의 위기를 극적으로 넘기고 1시간40분만에 승리, 3연승으로 준결승전에 진출, 25일 A조 2위의 멕시코(2승1패)와 결승진출을 놓고 격돌한다.

한국에이어 B조2위로 준결승전에 진출한 페루(2승1패)는 A조1위 日本(3승)과 겨루게 됐다.

한국은 지난8월 하와이서 열린 태평양연안대회서 멕시코를 꺾은바있고 현재 객관적인 전력면에서도 앞서고있는 만큼 25일 멕시코와의 준결승전을 무난히 통과, 결승에 진출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페루와의 준결승리그서 주장 李延淑·金貞順(이상 현대) 金允子·黃淑姬(태광산업) 黃淵順(일신여상) 등을 스타팅멤버로 내세웠다.

한국은 평균신장에서 3cm가 모자라는 약점을 黃淑姬·黃淵順의 2인 세터시스팀에서 빚어지는 다양한 트릭 플레이와 끈질긴 수비력으로 커버했다.

한국은 朴美姬의 재치있는 강연공, 金允子의 속공플레이, 李延淑의 여유있는 게임리딩으로 첫세트를 3점차로 선취했다.

그러나 2세트들어 한국은 페루의 강한 오픈강타에 블로킹네이 뚫리고 콤비네이션도 좋지않아 8-15로 세트를 빼앗겼다.

페루는 오픈공격과 블로킹에서 한국보다 앞선데다 한국인코치 朴萬福씨로부터 속공등을 배우고 세기도 갖춰다 3세트서도 한때 한국을 위협했지만 8-15로 빼앗겼다.

제4세트서는 중반까지 치열한 접전을 전개, 9-9타이에서 9-11까지 한국이 리드당했다. 그러나 한국은 정확한 서브리시브를 바탕으로 상대가 미처 손쓸틈 없는 빠른 공격과 블로킹으로 2점차로 빼앗고 승리했다.

◇준결승리그최종전적

▲B조

한국 3 (15-13 15-8 8-15 15-12) 1 페루
(3승) (2승1패)

▲A조

日本 3-0 멕시코
(3승) (2승1패)

4强중 3감독이 韓國人 / 페루와 決勝서 또만날듯

해설

현지의 전문가들은 결승서 한국과 페루가 다시 접전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페루는 한국에 이어 준결리그B조 2위를 차지했지만 A조 1위 日本보다는 한수 위이므로 결승에 오르리라는 것。이경우 한국이 페루와의 재대결서 꼭 승리하리라고는 어느누구도 장담할수 없다。신장의 열세를 콤비플레이와속공으로 커버는 했으나 한국 전략을 이미 페루에 노출시켰기 때문이다。또한「한번 이겨보았다」는 선수들의 우월감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결승때까지 선수들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시키고 긴장이 풀리지않도록하는게 지금으로서는 가장큰 문제다。

이번 대회에서보면 큰변화는 南美세의 등장이다。지난번대회(77년·브라질)에서 고작6위를 차지했던 페루가 한국도 두려워했던 中共과蘇聯을 격파하고 4강권으로 도약했다。역시 4강에오른 멕시코는 지난번대회서 10위에불과했다。신장과 몸의탄력이 뛰어난 南美선수들이 쿠바에 이어 국제 배구계에 본격적으로 뛰어듦에 따라 한국배구는 점차 어려운국면에 접어들것같다。그러나 이번 4강권에는 한국팀 宋世榮감독·페루 朴萬福감독·멕시코 朴志國감독등 3명의 한국인들이 지도하는 3팀이 끼었다는 사실은 국내지도자들의 자질이 뛰어나다는것을 입증하고 있다。

世界랭킹 百63위 老將 디블리 / 8위 태너눌러 異變

해태盃 프로테니스

해태배 쟁탈 국제프로테니스대회가 22일 잠실종합체육관서 개막, 1회전 첫경기서 세계랭킹163위의 노장 롤린·디블리(36·호주)가 예상을 뒤엎고 세계8위의 강자 로스코·태너(29·미국)를 1시간50분간의 접전끝에 2-1로 격파,파란을 일으켰다.

첫세트를 6-3으로 잃은 디블리는 제2세트 6번째 게임부터 더블·폴트를 거듭한 강서버 로스코·태너의 범실을 이용,날카로운 패싱·샷과 백·슬라이스로 맹공을 퍼부어 제2세트의 타이·브레이크에서 7-6으로 승부가걸린 마지막 세트서 태너를 능가하는 위력적인 강서브로 경기를 주도, 6-2로 각각 승리, 토틀2-1의 통쾌한 역전승을 거두었다.

첫세트의 고비는 8번째게임. 절묘한 백·핸드, 패싱·샷으로 선제리드를 잡은 태너는 처음으로 디블리의 서브게임을 빼앗아 첫 세트를 6-3으로 이겼다. 태너는 5개의 서브·에이스, 리블리는 3개의 서브·에이스를 기록하며 간대립이없이 서브로 포인트를 따냈다.

제2세트 6번째게임이 승부의 고비였다. 서브권을 가진 태너를 40-15로 리드하다 인속 더블·폴트로 듀스를 허용, 두차례의 듀스끝에 게임을잃어 2-4의 열세에 몰렸다.

노련한 백·슬라이스의 짧은볼과 서브·포인트로 제2세트를 빼앗은 디블리는 제3세트 들어서며 동요를 일으킨 태너의 스트로크·미스에 편승, 연달아 4게임을 선취, 대세를 결정지었다.

태너는 제2세트 타이·브레이크서 석패, 3세트서 일방적인 수세에 몰려 6-2로 완패했다.

참가선수중 최강자로 주목을 끌었던 태너는 경기도중 발목에 가벼운 부상을 입었으며 코트 주변서 움직이는 관중들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단식1회전

디블리 2 (3-6 7-6 6-2) 1 태너

아리아스 2 (6-1 1-6 6-2) 1 워릭

보리 隱退說 일축

【東京21日AFP=聯】스웨덴이 낳은 테니스 슈퍼스타 비외른·보리는 21일 오는 27일부터 11월1일까지 도오쿄(東京)에서 열리는 총상금30만달러의 세이꼬 테니스대회를 마지막으로 은퇴할 것이라는 항간의 풍문을 일축했다。

세이꼬 대회참석차 20일밤 부인 마리아나·시미오네스코를 동반하고 도오쿄에 온 보리는 지금자신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약간 지쳐있어 세이꼬대회후 4개월정도 쉬고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내가 왜은퇴해야되느냐?』고 반문하면서『나는 금년들어 3번이나 그것도 모두 결승전에서 매켄로한테졌다』고 말해 이번대회에서 설욕할뜻을 비쳤다。

보리는 존·매켄로에게 금년들어 윔블던대회와 全美오픈대회및 밀라노오픈대회결승에서 고배를마셨는데 이번 세이꼬대회에서도 두선수가 결승에서 대결할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보인다。

巨人팀 2승2패 日本시리즈

【東京21日AP=聯】日本프로야구 센트럴리그챔피언 요미우리자이언츠(巨人)는 21일 도오쿄(東京) 고라쿠엔구장에서 속행된 日本시리즈 4차전에서 퍼시픽리그의 니혼·햄을 8-2로 대파、2승2패를 기록했다。

7전4선승제로 패권을 가리는 日本시리즈 4차전에서 자이언츠는 7회말 강타자 하라·다쓰노리(23)의 3점홈런을 포함, 대거6점을 얻어 8-2로 대승을 거두었다。

射擊선수 解團式

제3회 아시아여성및 청소년사격선수권대회(인도네시아·자카르타)서 금메달13개를따내 종합우승을 차지한 사격선수단 해단식이 22일 오전7시 泰陵푸른동산에서 열렸다。

金亨七 선두에 / 馬術대회복합서

제13회 李龍文장군배쟁탈 마술대회가 22일 陸士마장에서개막, 복합마술경기서 金亨七(서울승마구)이 70.2점을 기록、2연패를 노리고있다。그리고 申昌武(대구승마회)가 61.3점、尹股燮(육사일반)이 60점을 기록하고있다。

한국、決勝進出흐려 / 월드컵J하키

【홍콩21日=聯】지난17일부터 홍콩의 킹즈파크 스타디움에서 열리고있는 제2회월드컵 주니어 하키선수권대회 아시아·오세아니아 예선대회에 참가중인 한국팀은 21일 A조 3차전에서 싱가포르와 1-1로 비김으로써 1승2무승부를 기록,결승진출의 전망을 흐리게했다。

한국은 이날하오4시(현지시간)부터 九龍반도 킹즈파크경기장에서 시작된 경기에서 전반7분만에 鄭成錫의 페널티·스트로크성공으로 1골을 먼저 얻었으나 후반 28분에 싱가포르에 1골을 허용해 결국 아깝게도 1-1로 비기고 말았다。

한국、덴마크 完破, / 世界J핸드볼 1승1패

캐나다몬트리올서 열리고있는 81년도 세계주니어핸드볼선수권대회 결승리그 첫경기서 한국은 덴마크를 28-20으로 완파, 덴마크와 함께 1승1패를 기록했다고 22일 선수단이 알려왔다.

이날 현재 유고와 소련이 2승으로 공동선두를 달리고 있고 中共과 西獨은 2패를 기록했다.

◇결승리그전적

한국 28 (13-11 15-9) 20 덴마크
(1승1패) (1승1패)

카타르에도 韓國卓球붐 / 코치등7명파견

대한탁구협회는 최근 카타르탁구협회의 요청에따라 金善台(郡山商코치) 李昌庸(萬頃中코치) 朴喜男(일반) 林明植(光州경신여고코치) 徐相吉(大邱心仁高코치) 朴商淳(前大宇중공업) 李勇(曉星女大코치) 등 7명의 지도자를 파견키로 최종결정했는데 이들은 오는11월10일부터 1년동안 카타르내 각클럽서 탁구코치로 활약하며 월1천6백50달러(1백15만5천원)의 보수를 받는다.

현재 카타르에는 79년4월에 파견된 金鎭業씨와 지난4월에간 李昭光씨가 국가대표팀을 지도하고있어 우리나라코치는 모두9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새로 진출하는 7명의 탁구코치들은 카타르의 11개클럽중 9개클럽에서 활약하게된다.

나의 이력서 — 윤치영 ⑦⑤

〈題字 尹致暎〉

維石과의 國會議員싸움

52년 公州乙區보선에 出馬 넷이對決

격렬한 攻防끝에 當選…미안한느낌

37度線아래까지 밀고내려왔던 中共軍과 北괴군은 다시 연합군의大反擊을받고 38線쪽으로 퇴각, 연합군과 대치했다.

연합군이 계속 北進의 기세를 보이자, 공산측은 뒤에 停戰의 사인을 보내며 休戰會의 開催전술을 쓰기 시작했다. 51년후반기에 들어서도 戰況은 언제 어떻게 어디서 急轉할지 예측불허였으나 시간이지나면서 점차 好轉돼 수많은 피난민들이 복귀하거나 收復지구에 들어가 농사를 지었다. 戰時 緊急令도 단계적으로 해제됐다. 그러나 1·4후퇴로 南下한 釜山의 임시정부는 그대로있었다.

나는 미국에서 귀국후 한동안병환으로 靜養을 했다. 주거지는 물론 釜山이었다.

이듬해(52년) 연초, 李 대통령은 나를 부르더니 공석이된 국회의원 補闕선거에 출마해보라고 권했다. 그렇지않아도 출마를 생각하고있던 참이었다. 그때 난 太平洋日新聞사장으로 있었다. 거기에다 制憲同志會회장과 韓美文化協會長이란 직함이 벌려있었다. 지난 한해는 野人의 입장에서 戰時홍보에 주력한 것이 나의 주된 일이었다.

국회의원의 有故지역인 9개선거구에서의 보궐선거가 공고된뒤 全南 求禮郡守가 날 찾아와 求禮에서 출마해달라고 권했다. 무투표당선이 틀림없다면서 당선후 在鄕군인회관을 하나 지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는중 公州에서 維石 趙炳玉이 출마한다는 얘기가 들렸다. 나는『옳거니, 維石과 한판 겨루어보자』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公州乙區보궐선거에 大韓國民黨후보로 출마했다. 경쟁자는 趙炳玉(民主國民黨)과 40대의 康友良(국민회), 30대의 鄭鍾烈(무소속)로 4파戰이었다.

戰時인데도 선거는 국민들간에관심이 대단했다. 公州乙區는 초대내무장관인 나와 4代내무장관인 趙炳玉, 前內務끼리의 대결이란 점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維石이나 나나 公州가 고향은 아니었지만 維石은 公州와 맞닿은 天原郡이 고향인데다 公州 永明학교 교사를 지낸 바 있어 나보다 입장이 유리했다. 그는 또 바로 얼마전 내무장관이었기때문에 눈에 안보이는조직의 強點을 갖고있었다. 게다가현지에선 양조업을 하는 梁某씨가 維石을 적극 후원해 그는 자금면에서도 유리했다.

가서보니 公州는 수준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었다.나는 여기에서 자신을 얻었다.『舌戰으로 승부를 내리란』돈과 地緣·血緣은 全無한상태여서 이른바 진짜 실력대결,입심對決로 판가름을 내기로 했다.

나는 錦江을 수십차례 건너다니며 江村과 鷄龍山골짜기의 山村까지 누비면서 수십차례의 강연을 했다. 공동강연,개인강연에 대한 평이 썩 좋게 들려와 마음이 든든했다.

그래도 역시 자금이란게 제대로 없으니 큰고욕이었다. 보다못해 任永信이 4백만원을 얻어다 나에게 주었다. 그래서 이래저래빌어쓴 돈이 3천만원에 가까왔다. 나중엔 선거빚을 갚는데 3년이나 걸렸다.

維石은 선거에서 수억원을 썼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선거자금에 있어선 도저히 그를 당할 수가 없었다. 우리는 하루에 錦江을 두번씩 넘나들었다. 그때 維石은 자동차만 10여대에 40여명의 선거부대를 이끌었고 나는 달랑 지프한대에 비서와 운전사뿐이었다.

維石은 또 申翼熙·柳珍山등 黨거물과 선거謀士들이 대거 몰려와 지원을 해 온통 公州를 누비며 기세가 등등했다.

나는 지원강연해 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대신 無名의 청년동지 80여명이 맨발로 뛰어주었다.

선거양상에서 維石은 與의 입장이었고 오히려 내가 野의 입장이었다. 나는 나대로의 국가관을 설파하고 民主國民黨을 공격하면서 유세에서 기세를 올렸다. 내가 李대통령과 친하다는 말에 維石은 마음이 좀 걸렸는지 하루는 유세중에『釜山경무대(당시 그렇게 불렀다)任비서한테서 온 편지가 나한테 있다』면서 가슴에서 편지를 꺼내는 제스처를 썼다.

나는 이내 공박했다.『이 선거는 경무대와 하등관계가 없고 경무대비서와 친한것은 관계가 없다. 나는 비록 경무대편지는 없으나 국가를 위한 주의주장만으로 여러분의 깨끗한 민주심판을 받으려한다』

『또 나는 金權,權勢,파벌,血緣을 다 초월한 사람이다. 주권자인 여러분의 공정한 한표의 행사를 바란 뿐이다』라고 역설했다.

公州는 당시 9개補選지구중 최대의 激戰地였다. 2월5일의 선거에서 나는 維石을 꺾었고 維石은 8천5백여표를 얻어 次點이었다.

나는 선거에서 막강한 세력을 이기고 당선돼 기쁘기 한량없었으나 한편 친구인 維石에 대해서는 미안한 기분이 들기만했다.

◇사진은 釜山피난시절의 國會회의모습。 나는 2代선거에서 낙선된후公州補選에당선 1년반만에국회에복귀했다。

千字春秋

글쓰는 自由

洪福柔 〈英文學者〉

사뭇 미묘하고 안타까운 것이 글쓰는 사람들의 창의적인 입장이다。참신한 생각이 머리에 떠올라도 완고한 사회적 因習이나 政治的인 이유때문에 그것이 流産되는 경우가 많고,무난히 産出된 작품이 있다고 해도 이것이 신문잡지와 같은 간행물에는 맞지않는 경우가 많다。작품의 내용이나 표현의 手法 내지 長短에 관해서 筆者의 의도와는 거리가 멀게 난도질을 당하는때도 없지 않다。그것도 筆者의 양해 없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사후에 화를 내봤자 도리가 없다。나는 과거에 某大學 출판사에서 이런 일을 당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글을 쓰지 않았고,지금도 글써달라는 부탁에 선뜻 응하고 싶은 생각이 잘 안난다。

印刷術의 발달은 출판물의 洪水를 이루고있고 혼자 한가롭게 글을쓰던 文筆家들은 출판문화에 큰기여를하고있다。그들은 작품발표의 기회를 많이얻게 되었고, 이것이 창작활동에 자극이 되기도하였다。그런데 글쓰는 사람들이『被雇傭者』와 같은 제약을 받게된다는데 문제가 있다。內容이 社논에 맞지않는다고 고쳐버리고,길이가 豫定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함부로 잘라버리고,짧으면 엿가락처럼 늘려놓는다。이렇게된 글은 筆者의 이름으로 내놓을수없는것이 분명한데도 筆者의 이름만은 고치는일없이 그대로 내놓는다。

쓰여진 글 보다도 筆者의 이름이 絶對的인 것 같다。참 딱하고 非文化的인 현상이다。문화활동을 暢達한다는 일이 이런 결과로 되는 수가많아 안타깝다。古代희랍에 프로크러스테스란 강도가 있어 사람의 몸을 침상에 놓고 침상 보다 길면 잘라 내고,짧으면 늘려서 침상과 같은 길이로 만들었다고 한다。出版하는 측에서는 이런 故事라도 염두에 두고 文筆家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말아야 할것이다。그럴때 비로소 陣痛과 産苦를 겪고 있는 그들에게 정말 좋은 글을 기대할수 있을 것이다。

流星의 賊 〈215〉

李炳注作 李友範畵

秋風何處至 ⑱

여럿의 심복 지한두의 말에 의하면 팔도의 궁수(弓手)들이 다 모였다고 했다。미상불 과장은 아니리라。그러나 사십명 이상을 헤아리는 궁수의 대부분이 황해도 사람이라고 보았다。말투가 그곳의 말투였던 것이다。

처음엔 정사(靜射)가 있었다。정사란 사수(射手)가 일정한 자리에서서 표적을 맞히는 경기이다。백보(百步)、이백보、삼백보 삼거리의 표적을 놓고 맞히는데 사십여명의 사수들 가운데 백보 표적을 관적(貫的)한 사람은 7명이었다。2백보 표적을 맞힌 사람은 3명,삼백보 표적을 맞힌 사람은 단 일명,그 이름을 연안 최금용(崔金用)이라고 했다。

계남은 참가하지 않고 지켜 보고만 있는데 지한두가 은근히

『손님도 한번 쏘아보시지 그래요』

하고 충동을 했다。그 말투엔,괜히 기술도 없으면서 재기만 하는 것이 아니란 뜻이 있는 것 같았다。

계남이 참가하지 않았던 것은 잡배들에게 섞여 기량을 뽐내 보는 것 같은 짓이 왠지 탐탁하지 않았던 것이다。

『좋소』

하고 계남이 나섰다。

『나는 여기 모인 사람들과 기량을 겨루긴 싫고。그러나 융숭한 대접을 받았으니 인사는 치러야죠。그러니 나는 저 표적 말고 딴 표적을 정해야겠소』

삼、사백보 는 아래에 바위 하나가 있었고 그 바위에 소나무가 외롭게 서 있었다。

『저 소나무 맨 위에 달려있는 솔방울을 떨어뜨리겠소』

하고 계남이 화살을 줄에 실어 별로 겨누는 것 같지도 않게 쏘았다。일순 후,소나무 꼭지근처에 화살이 매달려 햇빛에 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사람이 달려가 화살이 꽂혀있는 솔방울을 따왔다。

『천양관슬(穿楊貫虱)은 문자로만 있는 줄 알았더니 과연 그런 신기(神技)가 있는 거로군』

하고 감탄했다。

그러자 머리 위로 날아가는 새가 보였을 때 지한두가

『좀 저 새를 쏘아보시오』

하고 새를 가리켰다。

계남이 빙그레 웃곤

『내 기량을 자랑하기 위해 공연한 살생을 하긴 싫소이다』

하고 활의 장을 닫았다。

『그 말씀 [illegible]』

어림은 참으로 감동한 투로 말했다。

계남의 신기에 가까운 기량을 보고나니 다른 사람들의 궁술은 아이들 장난처럼 보였다。

이어 좌사(大射) 좌사(坐射) 주사(走射) 등 광록으로 진행되었는데 별반 볼 것이 없었지만 계남은 아까 삼백보사(三百步射)에 유일하게 성공한 최금용(崔金用)을 주목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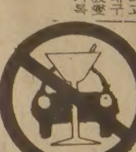
정여립도 역시 마찬가지인 심정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최금용은 나이는 20안팎, 그 몸짓은 굳세고 날쌔었다。비유하면 젊은 표범 같다고나 할까。거기 유연(柔軟)을 보태면 가히 천하제일의 명인(名人)이 될 소질이 있었다。

계남은 계속 최금용을 주시하며

(저 사람을 정여립 옆에 붙여 두어선 안되겠다)

고 생각했다。



모눈종이위의 生 〈234〉

趙善作作 金光培畵

모눈종이위의 生 ①

어느날오후 민희가 돌아왔다。무료한 오후를 나는머리나 감을까하고 연탄아궁이에 물을 올려놓고 있는데 대문밖에서『엄마』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혹시 민희목소리가 아닐까 싶기도 했지만 그애가 그런 시간에 그렇게,마치 학교에서 돌아오는 국민학교 아이처럼 가볍게 돌아오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으므로,나는 의아해하며 문간으로 나갔다。그런데 문밖에 서있는것은 역시 민희가 아닌가。잠깐놀란 얼굴을 하고 서있는 나에게 민희는 활짝웃어 보이며『언니』하고 달려들었다。민희와 나는 잠시 포옹했는데 그애의 눈에 반짝 빛나는 눈물을 보았다。

『언니 똑같네요。일년전이나 지금이나。엄만 안계셔요?』

『계셔。근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언니하고 엄마하고 보고 싶어서』

그때 어머니께서는 이미 부엌에 나서고 계셨다。『아니,민희 아니냐? 웬 일이냐?』하고 반가움과 놀라움의 말씀을 어머니는 입에 올리셨는데 취하셨기 때문에 발음은 분명하지 않으셨다。민희는 어머니에게로 달려갔고, 마루위로 올라가 어머니를 포옹했다。어머니께서는 발을 좀 헛디디며 민희에게 안겼는데 그런 당신의 표정은 반가움 쪽보다는 두려움 쪽으로 기울어져갔다。

아니나 다를까。민희가 포옹을 풀자 어머니께서는『너 남편은? 애기는? 함께 왔니?』하고 물으셨고,민희는『왜 함께 와요。헤어졌는데…』하고 가볍게 대답하는 것이었다。순간 어머니와 민희 사이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고,때마침 시장에서 찬거리를 사 바구니에 들고 대문간으로 들어선 은애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싶었던지 문간에 잠자코 서 있었다。잠시 후 어머니께서『추울텐데, 아들든 방으로 들어가자』하고 말씀하시며 은애의 손목을 잡았고, 그제서야 민희는『잠깐만요』하고 나를 향해 다시 댓돌로 내려서며『짐을 들여와야 하는데…모퉁이 가게에 맡겨 놓았어』하고 말했다。그런다음 민희는 문간에 서 있는 은애에게 눈을 주었다가『올케언니가?』하고 내게 물었고,『그래 서로 인사해』하자 민희는 성큼 성큼 은애에게 다가가 사내처럼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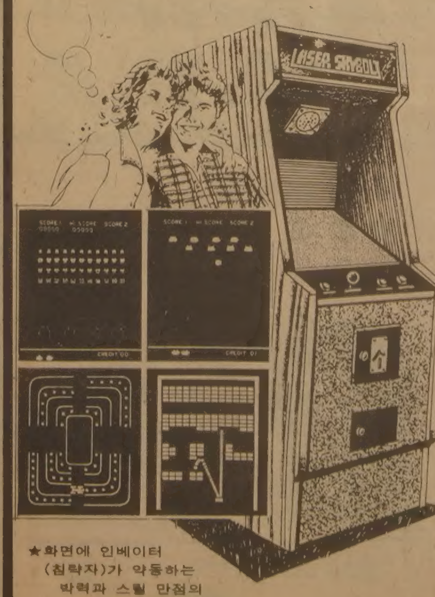
『텃세말고 우리 잘 지냅시다。언니』

『네』

은애는 부끄럼을 타며 웃었고,셋은 민희의 짐을 가지러 모퉁이의 가게로 나갔다。

짐은 바퀴가 네개씩이나 달린 커다란 트렁크 두개였다。공항에서 택시를 타고와 골목길을 더는 들어올 수 없으므로 그곳에 내려놓은 모양이었다。골목길은 아주 오래 전에 포장했기 때문에 콘크리트의 면이 트렁크를 끌기에 적당하지 않았다。그러나 트렁크는 세 사람의 힘으로도 들수 있는 무게가 아니었으므로 우리들은 하는수없이 바퀴를 굴렸다。콘크리트 면에서 트렁크가 부서져 나간 듯 아주 시끄러운 소리를 냈다。그렇게 [illegible] 것은 민희와 내가、또 하나는 뒤에서 은애가 밀고 들어왔는데,들어오면서 나는 민희에게『아이는 어떻게 하고。헤어졌다는것은 무슨소리니?』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민희는 임신만 하지 않았더라면 금방이라도 돌아왔을 거라면서,아이는 그 사람 것인게 확인돼 주고 왔다고 밑도끝도 없는 대답을 했다。내가 다시『그럼 곧 뒤쫓아 올지도 모르겠구나』하고 말하자『그런다고 누가 살아준대? 별꼴이야 정말』하고 턱없이 화를 돋우었다。

그렇게 돌아온 민희는 얼마전 내가 부산 여행에서 돌아왔을때나 비슷하게 이틀동안 꼬박 잠만 잤다。



M & J INTERNATIONAL
IMPORTER & EXPORTER &
DISTRIBUTER, VIDEO GAME &
PIN BALL WHOLESALE
LEASE RENT

✂취급품목:
SCRAMBLE, DONKY KONG, CRUSH ROLLER, SPACE PANIC, CRAZY CLIMBER, HUNGRY MAN의 New 50ITEMS

"3개월이면 투자액을 건질 수 있는 수익성의 사업입니다"

본사는 미국 아폴로우주계획에 의해 고도로 발달된 전자기술의 산물인 I.C.(직접회로)와 DIGITAL(디지탈)기술로 T.V. 화면을 이용한 새로운 발상의 과학적인 T.V. 오락기구를 개발하고 이곳 캐나다에도 수출을 단행, 신뢰받는 기계, 철저한 아프터 서비스로 여러분의 가게나 음식점등 새로운 비지니스로 자신있게 권해드릴 수 있읍니다. 또한 이 기계는 마이크로 컴퓨터로 엄격한 관리하에 생산되었기 때문에 정확하며 간단한 조작법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현재「도꾜」를 중심으로 약12만대가 보급되고 있는 수익성의 사업입니다.

— YU JIN TRADES CORPORATIN —

★화면에 인베이터(침략자)가 약동하는 박력과 스릴 만점의 COLOR VIDEO게임 입니다.

M & J INTERNATIONAL
1230 SHEPPARD AVE. W.
#15, DOWNSVIEW, ONT. M3K 1Z9
☎: 630-0313 대 표: 양 은 택

☎: DAY : 630-0313
NIGHT : 429-1057

후 원: YU JIN TRADES CORPORATION (KOREA)
G. G. I (CORPORATION(JAPAN)

1981년

추계 한인친선 낚시대회

일 시: 1981년10월31일 상오8시30~하오4시(우천불문 강행)
장 소: BELLWOOD CONSERVATION PARK
(문의: 755-9902, 미스타 정, 298-7806 미스타 최)
시 상: 대어특등, 대어1등, 대어3등, 치어상, 장기상(이상 Pike에 한함)
애석상, 희귀상, 감투상, 부녀상, 아동상, 잉어상 이상 트로피및 부상
심사규정: 참가자는 현장에 마련된 심사본부에 와서 등록번호를 받을 것
●등록비 1인당 5달러. ●1인2중 입상불가
●1인낚시대 1개, 바늘2개 이하 사용
●본인이 잡지않은 것은 인정하지 않음
준 비 물: 각자 낚시대및 미노스, 지렁이, 떡밥등의 미끼 준비 할 것.
심사위원: 곽창수, 최남해, 이정호, 김종선, 김진상, 이장관, 백은범, 조지섭
대 회 장: 정 삼 열 심사위원장: 김 재 용
접 수: 김 종 근
찬 조: 블루어 안경(구진모), 트로피(김국일)

후 원: 총영사관, 한인회, 노년회, 외환은행, 한국일보, 민중신문, 뉴코리아타임스, 코리언저널 기타 업체

주 최: 한 인 낚 시 협 회